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5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b>가</b>	<b>다</b>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4.865.243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b>마</b>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b>타</b>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b>자</b>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b>파</b>
광주 062.609.1300	<b>바</b>	<b>아</b>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5.2580	평택 031.651.7701
<b>나</b>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b>하</b>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b>차</b>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물건(한국YWCA) 2014. 07-08



(사) 한국YWCA연합회

2014. 7·8

**한국YWCA**

**이달의 생각**  
평화는 지키는 것일까, 만드는 것일까

**특집**  
전력수급정책의 허와 실

**이달의 현장 ③**  
2014 움직이는 탈핵학교  
청소년 탈핵강사 양성과정

**북한어린이돕기**  
민 훗날의 평화 · 뮤직앤뉴 바자회



까만 조약들로 가득한 거제 몽돌해변,  
오래전 이스라엘 광야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물맷돌을 고르던 소년 다윗을 떠올립니다.  
그는 전쟁에 어울리는 무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는 물맷돌이지만  
다윗은 가장 익숙한 것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보잘 것 없던 작은 물맷돌은 세상 그 누구도 감당 못할 위대한 일을 이루는 최고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나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보잘 것 없던 내 물맷돌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강한 무기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사진·글 / 최병성 (목사, 환경생태운동가)

목차

04 이달의 생각 평화는 지키는 것일까, 만드는 것일까 | 한미미

05 월레아침기도회 아름다운 물음 | 이훈삼

06 연합회 사무총장 보고 7·8월의 한국YWCA | 유성희

**특집** 전력수급정책의 허와 실

08 기획 ① 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 진정성 없다 | 진상현

10 기획 ② '녹색교회'를 향한 '절전은 곧 발전'의 길 | 유미호

12 기획 ③ 시민의 힘으로 고리 1호기 폐쇄를! | 이윤숙

14 이달의 묵상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라 | 이천진

**칼럼**

18 탈핵 방사능 오염 식품 피폭이 가장 커 | 김익중

20 인권 정책수립과 실행의 과정,  
정책의 결과가 인권 증진 이루도록 | 김정린

22 청년 애들아, 가만히 있지 마 | 박요한  
통일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 정서연

24 여성 남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와 발전을 | 박선영

26 여성노동과 가족 일하는 여성의 이슈는 가족과 사회 전체의 이슈 | 이은영

28 이달의 현장 ① 경기지역 회원대회 | 편집실

29 이달의 현장 ② 제3차 YWCA 돌봄정의포럼 | 편집실

30 이달의 현장 ③ 움직이는 탈핵학교·청소년 탈핵강사 양성과정 | 편집실·윤경민

32 이달의 현장 ④ YWBS 인터넷 방송국 | 김다혜, 오주현, 송혜민, 이소영, 선소미

34 지역운동이야기 목포YWCA 뜨겁게 꿈꾸고 운동하라 | 편집실

36 북한어린이들기 먼 훗날의 평화 | 김주영

37 북한어린이들기모금 뮤직앤뉴 바자회 외 6월 후원

38 성 인지 통계

39 연합회 소식

41 회원YWCA 여성주간행사

43 회원YWCA 소식



표지이야기

여수Y 대학Y 회원 24명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전북 임실군 지사면 안하마을로 농촌체험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양파, 감자 수확 등 농가의 일손을 도우며 생명사랑공동체 운동을 몸소 체험했다.

제50권 제6호 통권 512호 2014년 7월 23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차경애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문권희·백수경·신선·원영희·윤해원·이경순 편집 박은실·이주영·전하예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9703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주)세이미디어(02-730-0746) 인쇄 총무기획인쇄(02-2263-3223)

한국YWCA연합회는 세월호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평화는 지키는 것일까, 만드는 것일까

글 | 한미미 (연합회 실행위원, 북한어린이분유보내기 사업단장)



‘평화’라는 단어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가슴에 품고 사는 단어다. 일본침략과 35년의 암울했던 식민지 생활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6.25전쟁 그리고 1953년 이후 휴전선으로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와 해방은 그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평화는 그저 상징적인 디스플레이나 액세서리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악마를 보았다’는 제목으로 SNS에서 네티즌들을 경악시킨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팔레스타인)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200여명에 다다른 희생자들이 발생했는데 그 중 4분의 1이 어린이였다. 근데 더 믿을 수 없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위에 올라가 의자를 펴고 폭음소리와 폭격을 구경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고향인 예루살렘 언덕에서 평화의 명분 아래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우리도 또 다른 구경꾼으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마태복음 11장 15~17절). 본문의 말씀같이 한반도라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으나 분단의 현실에 아파하거나 애통해 하기는커녕 당연시 되고, 더 나아가 관심조차 없고 평화는 잊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같이 ‘평화를 지킴’으로 평화

를 이룰 수 있다고 무서운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최신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더 잘 알려진 무기의 이름도 ‘Peace Keeper’이다. 흑인인권운동가인 마틴루터킹 목사님도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도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피스키퍼(Peacekeeper)는 힘으로 지키려는 평화이지만, 피스메이커(PeaceMaker)는 사랑으로 세우려는 평화이다. 바리새인들이 평생 믿고 지켜왔던 율법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원수 사랑이었다.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세상의 법칙, 정의, 평등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조건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만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한국YWCA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실천하는 기독교 단체로서 누구보다 피스키퍼가 아닌 피스메이커로 거듭나야 된다. 평화가 가슴에만 머무는 단어가 아니라 생각과 행동으로 전환되어야 진정한 평화운동가가 될 것이다. 비용편익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국가안보 중심에서 사회안전중심으로, 유지·지탱 중심에서 성장·성숙 중심으로, 능력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바뀔 때 목숨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런 의식의 전환이 행동의 변화를 이끌 것이고 결국 홀로 사는 세상이 아닌 함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믿는다. ‘Peacemaker’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한국YWCA가 평화로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길 오늘도 간절히 소망한다. 

# 아름다운 물음

글 | 이훈삼 (성남주민교회 담임목사)

##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시니

어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진지하게 여쭙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그 답을 찾고 있었다. 이 청년의 위대함은 구원에 대한 답을 전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진지하게 다시 물었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율법은 다 지켰다 하니 이 청년은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신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강력한 말씀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면서 가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의 21절에서 그 청년을 ‘사랑’했다고 한다. 주님은 이 청년의 어떤 점을 기뻐하고 대견히 여기신 것일까?


이 청년의 고민에는 진정성이 있었다. 주님이 청년을 가까이서 차분히 훑어보면서 그를 대견하게 여긴 것은 이 청년이 지닌 물음과 그 물음에 담고 있는 진지함 때문이었다. 이처럼 영생에 대해 진실한 물음은 구원에 이르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물음이다.

지금 우리 시대 청년들은 무엇에 관심하며 주요한 고민의 내용은 무엇일까? 취업, 외모, 결혼, 돈, 차, 집, 여행,



풍요롭고 평안한 삶, 안락한 노후 등 청년들이 벌써부터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 일찍 노쇠해 버린 것은 아닐까. 벌써부터 소소한 일상에 몰들어 버린 삶, 너무 일찍 구원을 향한 치열한 탐구를 포기해 버린 삶이야말로 늙은 것이다. 진리, 구원, 영생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탐구하고, 묻고, 찾고, 두드리는 삶. 그러느라고 가난하고 무능하며 사회에서 패배자가 되더라도 그 지난한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청년성이다.

YWCA는 청년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그냥 여성이 아니고 청년 여성이다. 취업, 외모, 결혼 등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룩한 물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청년성이다. 우리는 늘 개인의 삶에서 내 생명 속에 깊이 존재하는 죽음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짧은 생이라는 아쉬움에 머물러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영생과 구원을 묻는 것. 현실의 욕망과 쾌락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인생과 역사의 본질을 묻고 찾는 삶이 청년성이다.

너무 일찍 노쇠해져 버리는 오늘의 시대에 진정한 청년성을 밝히는 YWCA가 되기를 바란다. 

# 7·8월의 한국YWCA

글 |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여름입니다. 하늘과 땅으로부터 오는 뜨거운 기운이 생명을 무르익게 하는 계절입니다. 봄부터 준비된 교육과 캠프,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여름에 한국YWCA는 탈핵과 돌봄을 핵심과제로 지역 현장에서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각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해결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한국YWCA의 탈핵운동도 핵발전소 폐쇄를 단기과제로 설정하고 명동의 캠페인과 지역의 서명운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동, 인천, 논산YWCA가 주관한 7월의 ‘불의 날’ 캠페인에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교육인 ‘움직이는 탈핵학교’ 가논산, 목포, 여수, 진주, 천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의정부, 순천, 전주, 강릉을 시작으로 전국의 청소년 회원들이 탈핵을 주제로 거리 캠페인으로 플래시몹을 비롯한 여러 행사를 기획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Y틴과 대학, 청년이 함께 준비하는 ‘청년평화주간’ 이 8월에 선포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평화와 생명의 세상을 위해 청년들이 꿈을 나누고, 세상과 소통하고자 함께 모입니다. 오는 8월 16일부터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제16차 한·일YWCA청소년협의회는 올해 초 열린 한·일 협의회에서 결의된 동북아 평화의 공동 노력 결의에 이어, ‘핵발전 진흥정책의 위험성’을 주제로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양국의 당면한 문제를 기초로 양국의 청년운동의 과제를 고민합니다.

‘어머니란 이름으로 탈핵을 외치다’는 부산YWCA가 제작한 탈핵운동 교재입니다. 핵과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독교운동으로서의 탈핵운동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필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물질과 자본의 논리는 무차별적으로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과 시대의 논리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가치는 ‘돌봄’입니다.

7월까지 진행된 돌봄정의포럼은 회원Y의 돌봄현장에서 돌봄필요자와 돌봄노동자를 함께 만나고, 돌봄운동의 의미와 정책적 과제를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봄의 현장에는 아픔도 있지만, 감동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울에 이어 대전YWCA 주관으로 열린 돌봄정의 포럼을 통해 신체적으로 아픈 이들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위한 돌봄의 과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돌봄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순환의 고리에서 돌봄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생명도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긴 역사 동안 돌봄의 현장에서 수고한 회원Y의 활동을 돌아보며, 한국Y가 해야 할 큰 과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작년 준회원YWCA에 이어 올해에는 대전, 부산, 서울, 순천, 전주, 청주YWCA 등 6개 정회원Y가 참여하는 모금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의 정체성에 맞는 재정정책과 모금의 방향, 목표를 함께 수립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번 과정이 함께 참여하는 회원Y간 상호 도움을 주고, 시너지를 갖는, 귀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달 1일에 열리는 월례아침기도회가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은 청년성 회복을 위한 기도로, 8월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로 함께 합니다. 전국의 회원들이 같은 주제의 묵상과 나눔, 결단을 통해 같은 목적과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생명과 평화의 길이 한국YWCA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고, 신앙의 고백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열어가는 한국YWCA가 되도록 관심과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전력수급정책의 허와 실

- 기획 ① \_ 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 진정성 없다 | 진상현
- 기획 ② \_ ‘녹색교회’를 향한 ‘절전은 곧 발전’의 길 | 유미호
- 기획 ③ \_ 시민의 힘으로 고리 1호기 폐쇄를! | 이윤숙



# 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 진정성 없다

글 |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에너지 부족의 해결책, 공급관리와 수요관리

지난 2011년 9월 15일 한국에서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전력부족을 걱정하지 않고 물 쓰듯이 전기를 써왔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전력공급의 책임자는 지식경제부(現산업통상자원부) 최종경 장관이었다. 최종경 장관은 사업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최틀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별명이 불도저였으니, 궁합이 잘 맞는 실세 장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힘 있었던 장관이 단 한 차례의 정전사태로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전력부족이라는 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발전소를 충분히 건설해서 국민들에게 전력을 마음껏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를 공급관리 중심의 해결책이라고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덕분에 값싼 전기를 원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9.15 정전사태를 통해서 전력이 무궁무진한 자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거처럼 공급 중심의 해결책으로 전력부족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한국은 더 이상 공급 중심의 해결방식으로는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2011년 3월 이웃나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원전 건설을 중단·축소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발전소에서부터 전력을 도시로 끌어가는 과정에서 대형 송전탑이 지역주민들

의 건강을 해치고 마을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밀양 사태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대규모 발전소를 바닷가에 여러 개 건설한 뒤,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가려는 공급 중심의 해결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식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우리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돌아보고 낭비적인 요소들을 찾아내, 이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겨울철에 건물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일러의 열에너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수요관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 위주의 해결책과 반대되는 방식이기에 수요관리 중심의 해결책이라고 한다.

수요관리 중심의 해결책은 국제사회로부터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절감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환경청은 새로운 수요관리 정책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들을 제대로 잘 집행하기만 해도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원회에도 ‘기후변화·에너지TF팀’을 구성해 효율개선사업을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했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수요관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전환 선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는 ‘에너지 수요관리 확

대’와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도 수요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낭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공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한국 정치인의 약속은 공약(空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따라서 빛 좋은 거짓말이 아닌지는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난 1월에는 현 정부 에너지정책의 틀을 설정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에서는 6대 중점과제 가운데 첫 번째 항목으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추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된 1차 계획과 차별화되는 특징으로 수요 관리로의 정책전환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과거 공급 중심의 잘못된 정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첫째, 23기의 원전을 갖고 있는 한국이 11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7기 정도를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35년이면 한국은 41기의 원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수요관리 정책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전력부족 때문에 강도 높은 전력소비 규제 정책을 실시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전력수급이 개선되자 수요관리정책을 슬며시 철회하기 시작했다.

셋째, 공급관리에서 수요관리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오랜 시간동안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설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수립된 ‘에너지 절약추진단’이 여전히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이라는 이름의 한시 조직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여전히 공급중심의 원전확대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37년째 가동중인 수명 다한 핵발전소 고리 1호기 (출처: 한수원 블로그)

##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이처럼 중앙정부의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빠른 속도로 변화가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과 부산에서는 원자력에 반대하는 탈핵시장이 당선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에서는 노후화된 고리원전의 위험에 직면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이 원전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이다. 게다가 신규원전 부지로 선정된 삼척시에서는 탈핵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운 무소속 시장이 당선되면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0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인구 1000만의 서울시가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소비를 줄여 원전건설을 막아내겠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과 한국의 지방정부는 원자력이라는 공급관리에서 벗어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수요관리로의 정책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겉으로는 수요관리로의 전환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친원자력 공급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의 공급관리와 수요관리라는 두 축이 균형을 이뤄야 국가정책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만약 한 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결국 9.15 사태처럼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잘 포장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이 세월호처럼 침몰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녹색교회’를 향한 ‘절전은 곧 발전’의 길

글 | 유미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정책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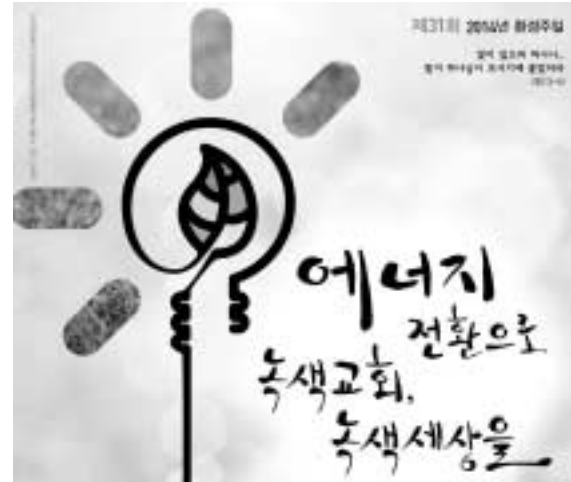
최근 정부는 2029년까지의 전력수급 대책을 세우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시동을 걸었다. 전력수급 계획은 국가에너지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으로 정확한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발전설비를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정부가 그간 수요예측에 실패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수요예측과 발전설비를 늘려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1인당 전력사용량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하면 정확한 수요 전망 속에서 설비 증설이 아니라 수요관리를 통해 동·하계 전력수요를 조절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그간 원자력발전소 등이 계속 증설되어 현재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앞으로 몇 기 더 추가될 터이니 말이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했던 점을 생각하면, 그 가운데서도 수명이 끝난 원전(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안전한 폐쇄는 우선적으로 고려됨이 마땅하다.

사실 지금 우리가 크게 염려할 것은, 전력부족이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욕심이 낳은 지구의 미래다. 유례없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기후 재난의 빈도 또한 잦아지고 있다. 그로 인해 수천의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다. 이번 세기 안에 지구 온도가 평균 1~5℃ 올라가면(우리나라는 3~5.9℃), 향후 50년 안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하니 말이다. 이미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뉴질랜드로 제한적이거나 이주하고 있다.

물론 아직 13억 명이나 되는 이들이 최소한의 전기조차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그 필요를 원전으로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 원전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될 수도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되어 초고압 송전탑을 거쳐 전해져오는 전기도 마찬가지이다.

길은 ‘에너지 절약 - 효율 향상 -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전환’에 있다. 수년 전부터 이 길을 걷는 녹색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지으신 자연의 온도와 빛을 느끼는 ‘핵 없는 교회’를 향한 선언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건물에너지의 감축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교회 전기 사용량 10% 줄이기’ 시범사업에 참여했는데, 10~30%의 감축성적을 낸 곳이 여럿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건물 에너지만이 아니라 교인들의 가정과 직장의 에너지까지 절약하여 그 양을 종합함으로 ‘교회절전소’를 세우는 교회도 있다. ‘절전소’란 ‘절전’과 ‘발전소’를 합한 신조어로, 내가 1kWh를 안 쓰면 누군가 대신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해낸 것과 같다는 뜻이다(1kW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 3kW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1kW를 절약하면 자연스럽게 3kW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절약은 기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절약분을 통해 다른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생산 방법보다도 효율적인데, 특히 ‘절전소’는 절약의 실천을 개인적 차원만이 아



니라 교회공동체와 마을로까지 즐거이 확산할 수 있게 한다. 지난해 ‘구로동교회 절전소’가 좋은 예인데, 올해는 ‘수원성교회 절전소’ 등이 착실히 세워져가고 있다. 이들 교회들이 실천에 앞서 행했던 것은 교육이다. 교육은 풍요와 편리만을 좇아온 에너지에 대한 자신의 탐욕을 성찰하고, 또 에너지 진단을 거쳐 절감 목표를 세워 꾸준히 실천하도록 돕는다.

주요 실천사항은 네 가지(‘전’ 해요 지구사랑, ‘기’ 억해 요 실내적정온도, ‘절’ 제해요 조명, ‘약’ 속해요 대기전력 차단)로 설명되는데, 첫째는 사무공간은 물론 예배와 교육공간의 실내적정온도(26~28도) 유지다. 실내온도 1도를 낮추면 전력소모가 7% 늘어난다는 사실과, 전국에 있는 에어컨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84만kW의 전력이 절약돼 원전 1기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냉방시간 조절과 함께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둘째는, 조명에너지 절약이다. 일정 조도 이상이면 불을 켜지 않거나 구석진 자리에 있는 전구를 아예 빼고 지낸다. 십자가 조명을 네온이 아닌 LED로 바꿀 뿐 아니라 예배실의 조명도 점차적으로 LED로 교체해가고 있다.

셋째는, 대기전력 차단이다. 전국적으로 플러그를 뽑지 않아 대기 전력으로 낭비되는 전기량이 약 10%인데 이것만으로도 원전 1기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멀티탭을 설치하여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필요시마다 스위치를 끄고 켜다. 또 냉온수기와 십자가 조명에 타이머를 설치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가 없도록 한다. 이 같은 실

천을 잊지 않고 지속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절약량을 월별로 당회 혹은 단위별 책임자가 모이는 자리와 교회 주보를 통해 전교인과 공유하여 실천을 지속해내고 있다.

한편 이로 아낀 전기요금은 모아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나 자체예산(혹은 출자)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곳도 있는데, 지평교회와 청파교회는 교회 건물 옥상에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지역 내 에너지소외계층(우리나라의 에너지빈곤가구 150만)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은광교회는 진단 후 효율개선을 단계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창호는 이중창으로, 천정은 낮게, 벽체는 단열을 보강하고 자연채광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면 냉난방에너지와 조명에너지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물, 종이, 인쇄용품, 음식물, 운송수단 등 모든 영역에 있어 녹색생활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또 교회들로 하여금 창조보전에 힘쓰는 녹색교회로 서게 하는 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햇빛발전, 태양열 온수와 난방, 지열 및 바이오디젤 이용, 자연을 이용한 환기 및 채광, LED 조명 교체, 친환경집자가로의 전환, 바이오 소변기 등 친환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꿈꾸며, 빗물 활용, 텃밭이나 녹색텃밭과 같은 녹지 공간 마련, 가까운 먹을거리로 남김없이 먹는 공동식사(생명밥상), 초록가게 운영, 자연학교 및 녹색교회학교 운영, 마을 내 환경봉사 등으로 창조의 때를 기억해 실현해간다. 그로써 그동안 ‘에너지 탐욕’에 눈멀어 생명을 고통스럽게 해온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필요만큼 전기를 사용하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게’ 있기를 즐겨워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과 친하게 지내며 창조에 순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연습을 한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욕심을 내지 않는 이상, 이 땅 지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입고, 먹고,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 우리 모두가 그를 온전히 믿고 살아감으로 신음하는 피조물 앞에 당당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기도한다. 



# 시민의 힘으로 고리 1호기 폐쇄를!

글 |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어느새 20회째가 다 되어가고 있다. 매주 화요일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정오쯤 되면 명동 일대의 직장인들이 “아, 오늘 YWCA 탈핵캠페인 하는 날이지?”라고 수근거릴 정도로 불의날 캠페인은 점점 유명해져 가고 있다. 최근에는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서명도 점점 불이 붙어가고 있고 “잘한다!”라며 격려하는 시민들도 늘어가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절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이라는 가치에 대한 공감감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리라.

얼마 전 한수원이 원전비리로 인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원전 캐릭터 이름을 공모했다가 공모계획을 취소한 우스우면서도 의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귀엽고 친근한 이름이 쇠도할 것이라 기대했던 한수원의 예상과 다르게 게시판은 완전히 원전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불안함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도배가 되었다. 다 죽이, 종말이, 끝장이, 싹쓸이, 한방이, 섬뜩이, 두려비, 흑가네 등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을 반영하는 이름부터, 처치곤란이들, 비리누리, 비리비리비리탄, 핵피아, 세담이(세월호 다음은 원전사고) 등 원전을 둘러싼 부정비리 등에 대한 조롱을 담고 있는 이름이 줄을 이어 한수원 관계자들을 당황케 한 것이다.

원전의 불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시도한 이 공모전은 이미 원전이 더 이상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며 오히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처럼 존재한다는 걸 알아차린 네티즌에 의해 완전 그 의도가 무력화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불안과 불신이 단지 표현만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을 막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

다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더 가능하게 할까? 매번 캠페인을 할 때마다 새롭게 고민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시한폭탄과 같은 핵발전소 고리 1호기

좁은 국토에 23기나 되는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어 핵밀집도 세계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이 좁은 대한민국에는 이미 30년 설계수명이 다 끝난 핵발전소 두 개가 있다. 고리 1호기는 2007년에 수명이 끝났으나 2008년에 수명을 10년 연장해서 지금까지 고장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위태롭게 가동을 계속하고 있고, 월성 1호기는 2012년에 수명 30년을 다했지만 이 또한 연장 가동을 위해 각종테스트를 거치면서 연장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가면 켈수록 줄줄이 드러나는 원전마피아의 비리를 통해 국내 핵발전소의 수많은 부품들이 가짜부품, 중고부품, 불합격부품들로 납품되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고리 1호기는 170km의 배선과 3만 개의 연결밸브, 1700km의 전기선과 6만 5천개가 넘는 용접부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만약 고장이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도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문제를 쉽게 찾을 수 없다. 한마디로 원전비리로 근원적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데다가 위험이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낡은 핵발전소인 것이다.

수명이 끝나 진작 폐쇄되어야 할 노후 핵발전소가 국민의 안전보다는 원전마피아의 이익이, 생명보다 돈의 논리로 위태롭게 가동되고 있는 사실은 곧 전국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핵폭탄을 끌어안고 살고 있음을 말해준다. 더군다나 고리 1호기 반경 30km에는 부산과 울산

시민 340만명 이상 살고 있고, 바람의 방향 등의 영향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모든 지역은 엄청난 방사능 피폭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참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수 없는 대참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지역에서는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고리 1호기 폐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고리 1호기에 대한 부산시민의 엄청난 불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세월호와 고리 1호기의 같은 점과 다른 점

그 동안 고리 1호기는 수많은 고장과 사고를 반복해왔다. 고리 1호기에서만 발생한 고장과 사고는 전체 핵발전소 사고의 20%나 차지할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난 2012년 발생한 12분의 정전사고는 아무도 모르게 은폐되어 있다가 사적인 술자리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냉각수를 식히는 발전기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 버린 그 사고는 자칫하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과 같은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중대사고였다. 고리 1호기는 최초의 핵사고인 스리마일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만들어져 안전성에 대한 배려가 부실한 구형원자로이다. 그런데도 수명연장을 위한 시험에서 원자로 파괴시험이 불합격하자 비파괴 검사를 통해 편법으로 합격을 시켰고, 수명평가와 방사선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수명을 연장해 가동해왔다.

한마디로 경제성을 내세워 폐설했어야 할 선박을 수리



2014년 6월 10일 제13차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하여 연장운행하면서 대참사를 가져온 세월호와 너무나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같은 것은 이 점 뿐만이 아니다. 허울뿐인 부실한 관리감독과 소홀하기 그지없는 방재 대책이 그렇고, 해수마피아와 원전마피아라고 하는, 사업자와 관련부처의 유착도 똑같이 닮은 꼴이다. 안전과 생명보다는 돈과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세월호와 고리 1호기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사고로 인한 고통의 규모와 시간적 연속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그 이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고리 1호기 폐쇄만이 최선의 길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았다. 꽃같이 어여쁜 아이들을 황망히 보내면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민낯은 원칙과 신뢰가 무너진 채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며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고 있는 괴물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만약 지금과 같은 괴물의 형상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고 이대로 잠재적 핵폭탄과 같은 고리 1호기의 가동을 계속 용인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 만약 고리 1호기에서 사고가 난다면 세월호 참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며,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위태로운 죽음의 불, 고리 1호기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무엇보다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위해 한국YWCA는 변함없이 매주 화요일 명동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핵발전소가 만들어내는 죽음의 불을 끄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불을 지피고 키워 나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뜨거운 소망이 퍼져 나가서 ‘시민의 힘으로 노후 핵발전소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이라는 유쾌한 뉴스 기사를 상상해 본다. 

#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라

글 | 이천진 (공정감리교회 담임목사)

거룩한 독서는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이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교의 영성훈련방법이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훈련이다. 12세기의 수도자인 귀고(Guigo)가 정리한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는 읽기(Lectio), 묵상하기(Meditatio), 기도하기(Oratio), 관상하기(Contemplatio)이다.

읽기는 성서를 작은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묵상하기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단어를 붙잡습니다.

기도하기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단계입니다. 참회의 기도, 간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찬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관상하기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로 가는 단계입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사랑스런 임재'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 읽기 (Lectio)

### 이사야 1장 10절-20절

10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11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12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13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 오지 말아라. 다 쓸모 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서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 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

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14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15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16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17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18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19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20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 묵상 (Meditatio)

1. 통치자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백성들은

누구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10절)

2. 주님은 무엇이 지겹다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무엇이 싫다고 하셨습니까? (11절)

3.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으로 나오니까? (12절)

4. 하나님은 무엇을 가져 오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무엇이 역겹다고 하였습니까? 무엇을 참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까? 무엇을 견딜 수 없다고 하였습니까? (13절)

5. 하나님은 정말로 무엇이 싫다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무엇이 된다고 하였습니까? (14절)

6.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여도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하여도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손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15절)

7.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그치라고 하셨습니까? (16절)

8.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찾으라고 하셨습니까? 정의는 누구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17절)

## 기도 (Oratio) / 묵상 나눔

###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라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심판을 설교했던 예언자입니다. 앗수르가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 왕국은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앗수르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남 왕국에게도 동맹국에 들어오라고 강요했습니다. 앗수르를 의지하지는 주장과 동맹국을 의지하지는 주장으로 나뉘어 남 왕국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강조합니다. "앗수르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동맹국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 외세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남 왕국은 앗수르를 의지하는 정책을 채택합니다.

이사야는 위기에 처한 남 왕국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설교합니다. (10절)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이 기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나를 사랑해서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제물이 기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것



예언자 이사야(The Prophet Isaiah), 라파엘로 산치오(Raffaello Sanzio)

은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일방적으로 드리는 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12절) 악을 행하면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월삭기도회, 공 예배, 큰 체육관 집회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제물과 집회가 가증스러워서 견디기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13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제물과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악한 생명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폭력을 가하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어서 무거운 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15절) 하나님은 기도 응답받는 길을 제시합니다. '악자를 괴롭히는 악한 행실을 버려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하나님의 정의는 억압받는 사람, 고아, 과부, 악한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자를 돌보고 살리는 정의는 버리고, 제물과 대형 집회로 죄를 감추려는 너희들의 기도는

들어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약자를 돌보고 살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찾을 때,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16절-17절)

**핵심 질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외세를 의존하고 있습니까?

**핵을 넘어 생태 사회로**

장윤재 교수는 ‘핵을 넘어 생태 사회로’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신학자 고든 카우프만(Gordon D. Kaufman)의 신학을 소개하였습니다.

“핵무기의 위협이 절정에 이르렀던 1985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신학자 고든 카우프만(Gordon D. Kaufman)은 핵은 창조주 하느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적이며, 그 자체로 성령의 역사에 반대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핵 시대의 도래’가 가진 문명사적 의미와 신학적 함의를 깊이 성찰했다. 핵 시대의 도래로 인류는 지구 위 모든 생명을 파멸시킬 수 있는 권세(power)를 갖게 됐다.”

“카우프만은 먼저 핵을 ‘종말론’과 연결시켜 사유했다...(중략)...그 형태가 궁극적 파국이든 아니면 궁극적 구원이든 종말은 언제나 하느님의 행위의 절정이고 궁극적으로 악에 대한 하느님의 최종적 승리의 성취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우리가 숙고해야 할 종말은 ‘핵 대학살에 의한 종말’로서, 그것은 전혀 하느님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카우프만은 강조한다.”

카우프만은 핵은 인간이 초인이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반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는 목사인 칼 루트비히 니체(Karl Nietzsche)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5세 때 아버지를 사별하고 어머니와 누이동생과 함께 할머니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본 대학에 진학하여 신학과 고전 문헌학을 공부했습니다. 스승인 리츨(Albrecht

Ritschl)을 따라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문헌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차라투스트라(Zarathustra)는 서른이 되던 해에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간의 고독을 즐기던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해주기 위해 산에서 내려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처음으로 대면하는 한 성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찌기 신을 모독하는 것은 최대의 죄였다. 그러나 신은 죽었다. 이와 함께 죄인들도 죽었다.”(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6쪽) 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야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죽여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위버멘쉬(Übermensch)’, 초인이라고 부릅니다. 핵은 인간이 초인이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반역입니다.

**핵심 질문** 핵은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까?

**관상 (Contemplatio) / 실천 (Praxio)**

**1) 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2) 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엇갈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3) 악한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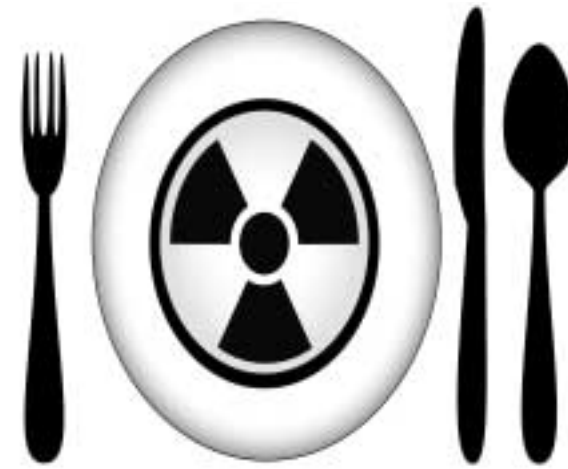


- **탈핵** \_ 방사능 오염 식품 피폭이 가장 커 | 김익중
- **인권** \_ 정책수립과 실행의 과정, 정책의 결과가 인권 증진 이루도록 | 김정린
- **청년** \_ 애들아, 가만히 있지 마 | 박요한  
통일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 정서연
- **여성** \_ 남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와 발전을 | 박선영

# 방사능 오염 식품 피폭이 가장 커

글 | 김익중 (동국의대 교수,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 제 1 편 \_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
- 제 2 편 \_ 핵사고의 원인
- 제 3 편 \_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 제 4 편 \_ 원자력을 대신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 제 5 편 \_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 제 6 편 \_ **한국인의 피폭경로**
- 제 7 편 \_ 고준위 핵폐기물
- 제 8 편 \_ 경주 방폐장
- 제 9 편 \_ 핵재처리
- 제10편 \_ 핵발전의 대안



방사능 오염 식품에 있어 안전기준치란 없다. "0"이어야 안전하다.

후쿠시마 핵 사고에서 발생한 방사능 물질은 약 200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 반감기가 몇 초에 불과한 물질들은 수일 내로 사라지는데, 이들을 제외하고도 약 100종의 방사능 물질이 지구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사능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로, 즉, 피폭경로는 다음의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외부피폭이다.** 방사성 물질이 신체의 외부에 있으면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신체가 피폭되는 경우이다. 노원구의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sup>1</sup>은 바로 외부피폭의 예가 된다. 방사선이 나와서 신체를 피폭시키지만 방사능 물질이 직접 신체내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어서 외부피폭인 것이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CT 등을 촬영할 경우에도 역시 외부피폭에 해당한다. 후쿠시마 핵사고에 의해서 외부피폭을 받는 지역은 오염된 땅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핵사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토지의 약 70% 정도가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어 있으니 약 70%의 일본인들은 이렇게 외부피폭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피폭은 거의 없다

고 생각된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물질이 날아오기도 하였고, 방사능 비가 내린 것도 사실이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후쿠시마 핵사고에 의한 우리 국민의 외부피폭은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둘째는 호흡을 통한 내부피폭이다.** 방사성 물질이 공기중에 있을 때 숨을 쉬면 방사능 물질이 폐를 통해서 신체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것이 호흡을 통한 내부피폭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풍이 부는 날이 동풍이 부는 날보다 훨씬 많다. 이를 편서풍이라고 하는데, 이 편서풍 때문에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멀리 있는 미국과 캐나다가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후쿠시마 핵사고에 의한 우리 국민의 호흡을 통한 내부피폭 역시 무시할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셋째는 피부를 통한 피폭이다.** 우리나라에도 적은 양이나 방사능 비가 내렸다. 그 비를 맞은 경우 피부를 통한 피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능 비를 맞은 후 빨리 씻을수록 피폭량은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피폭경로 역시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는 음식을 통한 내부피폭이다.** 현재 일본 국토의 약 70%가 오염되어 있다. 이는 일본산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그리고 축산물 등의 방사능 오염가능성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는 북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본산 식품들은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

성이 높다. 이러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여 피폭되는 경로가 바로 음식을 통한 내부피폭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하여 방사능 측정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식품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채 수입이 시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행히 정부가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은 모두 되돌려 보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피폭량을 줄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2013년 9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은 방사능에 오염된 채 그대로 수입이 허가되었고, 모두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며 기준치인 370Bq/kg 이하였던 수산물을 모두 유통시켰다. 이 기준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아직 단 한번도 이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식품이 발견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시까지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전체가 유통되었던 것이다.

필자가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방사능에 오염된 채로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명태, 고등어, 대구 등이었다. 다행히 정부가 2013년 9월 소위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이후 수산물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위험이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정부가 취했던 조치는 일본산 식품에 한하여 기준치를 일본 기준치인 100Bq/kg로 낮추었고,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수산물에서도 세슘이 발견되면 기준치와 상관없이 수입을 막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 조치 중 앞의 두가지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조치였다. 일본의 기준치인 100Bq/kg 역시 너무나 높은 수치여서 아직 단 한번도 이 이상 오염된 수산물이 발견된 적이 없다. 또한 후쿠시마 근처의 8개현은 가장 수입량이 많은 명태와 고등어, 그리고 대구를 수입하는 곳이 아니어서 이 세가지 수산물의 수입에는 어떤 영향도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는 고등어는 대부분 도쿄도에서 수입하고 있고, 명태와 대구는 홋카이도에서 수입하는데, 도쿄도와 홋카이도는 금지된 8개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다른 근거는 비록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고 조금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조사방법이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산물은 수입될 때 수 톤에서 수 십톤씩 수입된다. 그중에서 단 1Kg만 측정하기 때문에 전체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런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서 아직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는 것이다. 세슘이 검출된다는 것은 100여 가지의 다른 방사능 물질도 같이 오염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방사능 급식조례를 만들고, 학교급식에서 방사능 측정을 하기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히 피폭량을 줄이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주면 좋겠지만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스스로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방사능은 어릴수록 민감하다. 적어도 어린이들,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서는 방사능 오염이 없도록 우리 어른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sup>1</sup> 2011년 11월에 한 시민의 최초 제보로 2년 가까이 노원구청 뒤편에 방치된 방사성 세슘이 고농도로 검출된다는 사실이 당국에 의해서 공식 확인됐다. 기준치의 최대 3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아스팔트의 처리를 놓고 지자체인 노원구와 정부 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 사이의 공방이 이어졌던 사건이다.(주 편집실)

# 정책수립과 실행의 과정, 정책의 결과가 인권 증진 이루도록

글 | 김정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인권담당관)

##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올 4월에 있었던 장애인권리위원회 제7차 회기에서는 장애인권리 분야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일반논평 (general comments) 2개가 채택되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원칙인 ‘접근성(accessibility)’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 앞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인정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에 대한 것입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모든 서비스,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IT기술 및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 및 의사소통 및 여타의 시설 및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각 해당국가는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금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기존에 통념으로 여기던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법적 권리 행사의 제약에 대해서 이것이 인권침해임을 명시하고, 장애의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법적 권리를 인정받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즉, 정신지체장애인들을 금지사나 한정지산자로 정하거나 또 후견인들로 하여금 이들을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이슈에 대한 위원회의 해석이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그 해석이 구체적이며, 더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생활의 전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된 상태라는 것이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

을 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장애인 정책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획기적인 시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자선(charity)보다는 인권을 위해

최근 국내에서도 복지나 개발분야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 (human rights based approach)’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프로그램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유형의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YWCA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 논의나 정책들이 자선에 기반한 접근법 (charity-based approach)을 채택해왔기 때문에 정책 수혜자들을 ‘정책 입안자들의 자선’에 기대는 수동적인 위치에 두었다는 비판과 반성을 바탕으로 대안적 방안으로 인권적 접근법이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적 접근법이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명확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번 시도해 본다면, ‘인권적 접근법이란 공공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과 결과가 그 정책에 관계된 모든 사람 및 집단의 인권을 (더 잘) 보호, 증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 정도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권적 접근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을 이루는 3가지 요소를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 인권적 접근법의 핵심은 ‘인권’이라는 점입니다.

다. 즉, 반드시 권리 주체와 의무 주체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여타의 접근법과 구분짓게 하는 핵심입니다. 인권의 주체는 국민(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그 나라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개념의 국민), 의무 주체는 국가라고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정책입안자의 자선이 포함될 여지가 없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예로 들자면, 장애인은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이동하고, 의사소통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 교통수단을 장애인의 필요에 맞게 맞춰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의사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통신환경을 만들고, 교통 및 통신 서비스제공업체들에게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인들의 이동 및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을 경우 장애인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둘째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 국가(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으로 인해 받게 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당사자들은 궁금한 것을 묻고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는 권리들 ‘알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시가 장애인들의 이동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먼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장애인들에게 물리적 이동과 관련된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모든 이해당사자들, 즉 장애인, 버스택시업체, 건설업체, 교통 및 자동차 전문가, 건축가 및 건설 전문가, 일반 시민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타협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알고 있는 정책수립과정’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

히 그래야 한다고 알고 있는 과정’을 제대로 밟는 것이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해야 하고, 또 정책의 성과가 그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시가 장애인친화적 교통정책을 시행하여, 시내 모든 버스노선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 장애인 편의버스가 배치되고, 버스 승강장도 휠체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개조되고, 장애인 전용의 택시서비스가 마련되었다고 합시다.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을 제외하여 버스로 출퇴근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시간대를 놔두고 복잡한 시간에 버스를 탄다고 눈치를 받게 되었다면, 장애인 편의버스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버스회사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노선들을 없앴다면, 장애인전용 택시서비스가 있다고 일반 택시들이 장애인들을 태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면, 정책의 결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때때로 의도와 성과가 좋은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 보다는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앞의 예에서와 같이 경제적 부담으로 버스회사가 일부 노선들을 없앤다면, 이는 장애인들의 이동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가가 모든 서비스를 혼자 도맡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에 상당히 의존합니다. YWCA와 같은 민간단체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라면,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지고 있는 인권의 의무를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YWCA가 참여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실제 주민들의 인권, 특히 여성들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확대해야 할 것인지 민감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법률과 정책을 늘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 얘들아, 가만히 있지 마.



글 | 박요한 (전주Y 대학Y 회원)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전원 구조라는 기사와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후에 많은 단원과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일반 여행객들이 구조되지 못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대한민국은 큰 슬픔에 빠졌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며 남은 실종자들이 돌아오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구호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수십 년을 먼저 살았다는 이유로 어른들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따르던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다. 과연, 어른들의 말을, 그저 ‘세월’만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자신의 진로이다. 하지만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어른들은 말한다.

“너희는 가만히 공부만 해, 공부해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자신의 진로를 어른들의 말만 듣고 ‘성공 아닌 성공’을 위해 살고 있다.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공부=성공’이란 등식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야간자율학습을 하게 했다. 한창 다양한 생각을 하며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만들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갇혀 공부만 하는 노예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 누구도 거기에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말을 순순히 따랐다.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들의 말을 항상 따르던 학생들에게 돌

이킬 수 없는 큰 참사가 발생했고 그 슬픔은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세월호 이후 사회의 변화를 요구했고, 정부는 국가개조론을 꺼내들며 큰 개혁을 예고하였지만 아직까지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사회를 고치기 이전에 사회에 퍼져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먼저 고쳐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그 어떤 개혁론보다도 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펼치도록 어른들이 원하는 공부보다도 학생 스스로가 원하는 공부를 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공의 개념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공부=성공’이 아닌 ‘자신=성공’이란 등식이 완성될 것이다. 내면의 자신을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성공을 이루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제 어른들은 아이들을 놓아줄 때가 왔다. 아니 어찌면 전부터 놓아주어야 할 우리 아이들을 지금까지 어른들의 욕심으로 잡아 놓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른들의 역할은 이제 아이들을 꽂꽂 묶어놓는 족쇄가 아니다. 아이들이 비전을 향해 뛰어갈 때 혹시 넘어지거나 또는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옆에서 등을 토닥여 주면서 격려해주는 진짜 어른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어른들은 안다. 언제 힘들고 어떤 위로가 가장 힘이 되는지를. 아이들은 안다. 옆에서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얘들아,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 내면에 있는 속삭임을 듣고 뛰어나가길 바란다.” 

# 통일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글 | 정서연 (연합회 생명평화위원회 간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세대는 ‘힐링’을 위한 자기계발서와 멘토에 열광했고 이 안에서의 긍정과 위로의 언어에 용기와 힘을 얻었다. 하지만 자기계발서와 ‘힐링’메시지는 순간의 자기위안일 뿐 냉엄한 현실 속에서 마법과 같은 이 주문은 통할 수 없다는 더 쓰라린 진리를 맞고 있다. 지난해 ‘어느 고3의 명언’이라는 1~3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4~6등급은 치킨을 튀기며 7~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는 ‘수능등급과 치킨의 상관관계’는 삶 자체에 대한 자조를 보여준다. 자신의 삶을 ‘치킨 배달’로 귀결시키는 이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통일’을 위해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꿈꾸고 노력하는 것조차 현실에서 배신당하고 좌절과 절망만 경험하는 이들, 당장의 현실이 두렵고 막막한 이들에게 우리는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과 사고의 전환을 ‘요구’ 할 수 있을까?

2011년 통일외식조사에서 통일이 남한 사회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20대는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49.2%,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0.8%로 나타난 반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22.9%,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7.1%로, 두 결과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1</sup>.

변중현은 ‘20대는 통일의 문제를 점점 더 현실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통일이 개개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높지 않다’<sup>2</sup>고 분석하고 있다. 민족사적으로 단일한 역사문화적 공동체

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는 통일 당위성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고 글로벌, 다문화주의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청소년, 청년들에게 민족주의의 강조는 폐쇄적이고 편협하게 들린다.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는 오늘날 당장의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통일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도 ‘통일’,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도움 기회를 찾는 청년들도 있고 ‘YWCA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다양한 시민단체를 찾아가 ‘평화’를 배우며 통일을 꿈꾸는 젊은이들도 있다.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희망을 갖는다. YWCA가 청년운동을 강조하며 다음세대를 키우려고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갖는다. 그렇다면, 소수의 이 청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물질지향, 소비와 소유중심적인 삶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과 가치로서도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Y가 추구하는 ‘정의, 평화, 생명’ 가치가 단순히 옳기 때문에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이러한 가치에 기반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 때에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Y 운동은 가치와 실천이 함께 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 속에서,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분단 상황으로 인한 또 다른 억압과 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아픔 등을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그 때에 청년들에게 통일이 더 이상 나와 무관한 일로만 여겨지 않는, 새로운 출발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박명규 외, 『2011 통일외식조사』, 2011.  
2 변중현, 20대 통일외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정책연구》21(1), 2012.

# 남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와 발전을

글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5월 2일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시대가 시작된다.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여 년 만에 여성정책의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그동안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여성정책의 발전을 견인해 왔다. 1996년 시행 이후 16차례 개정되었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 변화를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9년에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안으로 ‘성평등기본법안’을 발의하면서부터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여성가족부도 2010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여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양 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성평등기본법안’과 ‘여성정책기본법안’은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19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에 대한 논의는 다시 본격화되었다. ‘성평등기본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과 ‘양성평등기본법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되었다. 이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법명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을

‘여성발전기본법’에 있던 ‘남녀평등촉진’, ‘여성발전’ 대신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하였다.

둘째, ‘양성평등’의 개념 정의를 법정화하고, ‘성희롱’의 개념을 ‘고용상 불이익’에서 ‘불이익’으로 변경하고, 이익공여의 의사표시, 성적 요구를 추가하여 성희롱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셋째, 여성가족부장관에게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다.

넷째,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필요한 전담 전문인력을 지정하도록 하여 정부 내 양성평등정책의 조정·협력·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하여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기존의 모성보호를 권리로 전환하고 그 대상을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현행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였다.

아홉째,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평화통일 과정에서의 남녀 동등한 참여 등을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과정에서도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열 번째, 현행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고, 여성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을 발전의 대상으로 보는 발전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정책의 목표를 양성평등 실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내외 여성정책의 중심이 ‘여성중심’의 정책접근에서 ‘젠더중심’의 정책접근으로, 나아가 성 주류화 전략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중심의 정책접근에 치중되어 있어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담보할 수 없었던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국가의 모든 정책이 성 인지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과 조정 요청, 그리고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 부여와 함께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에

까지 양성평등책임관과 전문인력을 두도록 강제하였다. 그리고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대신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심의의 내용을 확대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세 번째 특징은 법의 목적에 맞게 정책명도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정책을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시책(성주류화), 양성외의 균등한 참여를 위한 시책,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등으로 구분하여 현재까지의 여성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었지만 법으로 제도화가 되지 못했던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국가성평등지수, 지역성평등지수 조사·공표 등을 법정화하는 것을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네 번째 특징은 적극적 조치의 실시를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서 ‘차별로 인해 특정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로 변경하여 적극적 조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중립적 개념을 사용하여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관리직 목표제’를 의무화한 것은 적극적 조치를 둘러싼 지형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관리직 목표제를 공공기관까지 의무화한 것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여성정책을 전반적으로 규정된 기본법으로 여성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이자 기본지침인 ‘여성발전기본법’의 위상을 고려할 때, 젠더 패러다임 또는 성평등 패러다임에 맞춰 여성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이 양성평등실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여성운동, 여성학계, 여성정책담당기구간의 긴장과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양성평등정책의 발전을 위한 관민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 일하는 여성의 이슈는 가족과 사회 전체의 이슈

글 | 이은영 (연합회 실행위원)

2014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일하는 가족을 위한 백악관 회담(The White House Summit on Working Families)' 행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일하는 가족(Working Families)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근로자의 근로 환경 및 복지개선과 인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해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 리더들 각각 5명씩 초청했다. 한국에서는 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김균미 서울신문 부국장, 광정은 코스모폴리탄 한국판 에디터, 이은영 한국기술과학대학 교수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여성 리더로 참석했다.

지난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일하는 가족을 위한 백악관 회담'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백악관 여성자문위원회와 노동부, 미국진보센터(CAP)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올 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하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방안과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국제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백악관 회담에는 미국 전역에서 노조와 비정부기구(NGO),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지도자들과 학계, 정부, 기업 최고경영자, 일반 시민 등 약 1500명이 참석했습니다.

회담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최저임금과 동일임금, 직장 조직의 구조, 승진과 보상, 경력사다리와 리더십, 출산/질병/가족돌봄을 위한 유급 휴가의 이슈 등에 대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부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부부가 기초연설과 마무리연설 등에 모두 나서 최저임금 인상, 이어 유연근무제 확대와 유급 출산·육아·가족돌봄 휴가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여성과 가족의 문제가 미국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여성이 성공하면, 미국이 성공한다"는 국정연설을 한 이후 이번 회담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었고, 이는 21세기 변화된 일과 가정의 현주소와 양자의 양립을 위한 법적 지원 필요성을 공론화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유연근무제 확대와 유급 출산 휴가 및 병가, 가족돌봄 서비스 제공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연방법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Family Fact'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를 '여성관련' 법안이 아니라 '가족' 법안으로 명명하는 것도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직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연방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백악관 회담을 참관한 뒤 느끼는 인상적인 사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여성의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것은 이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담의 모든 일정과 연설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아젠다의 기조는 '유급 출산 휴가나 유급 병가, 유급 가족돌봄 휴가 등 각종 가족관련법이 여성만의 이슈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이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출

산과 육아, 가족돌봄 등의 가족 내 주요 역할 분담자가 여성인 것은 틀림없지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 가족 모두의 문제이며 또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이기도한 것입니다. 가족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은 관련 법안에 대한 사회적 주의 환기나 여론 형성, 지지기반 확대 등의 면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하는 여성을 넘어 '일하는 가족'에 대한 배려와 법적 보호 장치는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슈에 대한 접근방법입니다. 특정 어젠다를 정해 다양한 스토리를 입혀 전 국민적 이벤트로 끌고 나가는 강력한 추진력과 싱크탱크·비영리단체 등 민간 분야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른바 '스토리텔링을 통한 공감 얻기'가 정책제안이나 의제 설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임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모든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처음은 해당 이슈에 대한 일하는 여성의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부분이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고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고무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회담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일하는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단체들을 방문했을 때 느낀 것으로 그들의 체계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미국 진보센터(CAP), 노동부 여성위원회, 여성기업인을 위한 벤처펀드, 뉴욕시의회,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닷컴(CARE.COM),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이리런치(iRelaunch), 여성창업 교육센터 등을 방문했는데 이중 실적과 연계시켜 여성 임원들의 숫자를 늘리도록 기업들을 상대로 활동하는 단체, 신뢰할 만한 여성 사외이사 후보군 자료를 작성해 기업에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경력 단절 여성들의 복지 성공담과 기업들의 모범 사례들을 모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단체 등이 매우 독특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YWCA의 활동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케어닷컴(CARE.COM)과 아이리런치(iRelaunch)를 방문하



면서 느낀 바가 컸는데, 이들 기관의 공통점이 체계적인 시장조사와 데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활동내용을 보면 현재 Y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였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 케어닷컴(CARE.COM)의 경우도 회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 회원들의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데이터와 시장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들의 경쟁력이자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리런치(iRelaunch)의 경우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6단계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뿐 아니라 성공한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조사를 통해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용자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문제를 가진 경력단절여성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YWCA만큼 폭넓고 다양한 활동을 오랜기간 지속해 온 단체는 보지 못했는데, 그만큼 Y의 그간의 활동에 대한 저력을 느끼기도 했고, 일정중에 만났던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한국YWCA에서 왔다고 하니 미국 정부 여성정책의 핵심 브레인중에도 Y 활동가 출신 여성이 있다고 반가워해서 Y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국YWCA도 그간의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금 더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어떤 단체보다도 더 진일보한 여성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수명다한 핵발전소 폐쇄하여 탈핵 생명세상 이루자

글 | 편집실

생명의 기운과 녹음의 생명력이 넘쳐난 7월의 첫날, 2014 YWCA 경기지역 회원대회가 안양시 소재 연성대학교 연곡문화센터에서 있었다.

5월부터 시작된 지역별 회원대회의 열기가 5월 15일 북부지역, 5월 19일 동부지역에 이어 5월 29일 중부지역, 6월 11일 서부지역 회원대회에 이르기까지 지역에서 지역으로 Y회원들의 탈핵에 대한 열원과 결의가 드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열린 경기지역 회원대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을 귀하게 여기는 운동을 벌여온 경기지역 12개 회원Y 1만 5천 명 회원들은 많은 생명을 파괴하는 핵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탈핵의 필요성과 우리의 실천을 함께 배우고 공감하며, 결의하기 위해 모였다.

개회식에서 임영숙 경기지역위원장은 “우리 경기지역은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 있는 지역으로서 유가족의 아픔에 온몸으로 함께하며 기성세대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히며 “지금 당장의 이윤과 편리를 위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핵에너지를 마구 사용해왔다”며 “이제 경기지역 YWCA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의 사명을 받은 기독교여성으로서 과감히 탈핵실천가로서 행동해야 하며, 각자의 에너지 절약과 실천을 넘어 원전확대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을 되돌리고 태양과 바람, 생명에너지 중심의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이어 ‘한국Y 탈핵 생명운동’ 이란 주제로 김익중 교수(동국대의)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등은 탈핵을 국가적으로 선포하고 원전을 폐쇄하고 태양과 풍력, 수열, 지열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전에서 얻는 전기가 30%에 이르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이 3%에 불과해 기형적인 핵발전소의



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시에 쓰나미를 견디지 못하고 파괴된 발전소는 모두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명 다한 고리 1호기·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 원전 23기의 핵사고 확률을 27%로 높이는 즉각 폐쇄 대상 핵발전소라 주장하였다. 핵의 위험성을 공유한 회원들은 선진국 사례에서 탈핵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핵없는 세상을 위한 YWCA회원 결의문’ 을 낭독했다.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핵없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생명중심의 지속가능하고 소박한 생활을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탈핵 평화콘서트에서는 Y-틴 출사 인디가수 ‘마린’ 과 사회적 기업 ‘몽땅’ 이 출연하여 회원 모두에게 탈핵과 평화에 대한 열기를 더해 주었다. 마지막 순서에는 회원대회 입장시 나누어 주었던 색색의 리본띠에 탈핵을 염원하는 문구를 빼곡이 적어 서로 다른 색상의 리본으로 묶어 탈핵의 염원을 이어갔다.

이날 모인 500여 명의 회원들이 지장을 찍어 ‘노후 원전 폐쇄! 탈핵 생명 세상!’ 플래카드를 완성하고 경기지역민과 대한민국, 그리고 나아가 세계시민들에게 탈핵을 알리고 함께하기를 염원하였다.

# 가사노동은 사회화되어야 할 돌봄노동입니다

글 | 편집실

7월 17일 대전YWCA 강당에서 제3차 YWCA 돌봄정의포럼이 열렸다. 대전YWCA와 연합회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YWCA와 돌봄노동’ 을 주제로 돌봄노동자로서 ‘내가 보는 ‘나’, 내가 보는 ‘사용자’라는 제목으로 한춘희 회원(대전Y 살림돌보미)의 사례발제와 ‘YWCA와 돌봄노동: 가사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으로 광지영 교수(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 숭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발제가 있었다.

김기동 위원장(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 날 포럼에서는 제1차 포럼 ‘돌봄 가치의 근원을 찾아서’ 와 제2차 포럼 ‘보편적 복지로서의 돌봄’ 에서 논의했던 돌봄 가치의 의미를 돌아보며 제3차 포럼이 시작됐다.

사례발제자로 나온 대전Y 살림돌보미 한춘희 회원은 2007년 2월 돌보미 교육을 받으며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YWCA 돌보미 네트워크인 ‘돌봄과 살림’ 이라는 이름은 예쁘지만 아직도 살림돌보미들이 가정부, 식모, 파출부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성들의 직업 중 3D 업종에 포함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YWCA의 살림돌보미로서 ‘내가 보는 나’, 이용자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다. 한춘희 회원은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여성의 힘을 키워 능력 있는 YWCA 살림돌보미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일을 마치고 서점에 가서 업무와 관련한 전문서적을 읽고, 이용자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해 돌보미 회원들이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사례발제 후 대전Y 돌봄 회원은 아르바이트 수준이 아닌 Y의 얼굴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일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익산Y 실무자는 산돌보미의 경우 산모들의 요구들을 돌보미가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돌보미들이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

는 제도가 YWCA 안에 마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지영 교수는 ‘YWCA 돌보미 회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이라는 주제로 YWCA의 실제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가사 노동을 공식부문의 돌봄노동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돌봄 노동자들뿐 아니라 가사서비스 산업 전체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가사서비스 일자리는 비공식 부문의 대표적인 여성 일자리로서 고용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며, 사업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고용되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사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단시간 근로 및 비정규직 보호 논의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광 교수는 살림돌보미로서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 4대보험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이 시급하며, 퇴직금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돌봄노동의 범위를 특정 대상이 있는 돌봄으로 한정짓지 않도록 개념을 확대해서 사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 교수는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를 통해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외국의 사례를 나누며, 따라서 한국에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사서비스가 안정화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Y가 돌보미 회원의 구인구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보미 회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업무를 독려할 수 있는 신뢰가 넘치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럼을 마쳤다.

# 한국YWCA ‘움직이는 탈핵학교’

글 | 편집실

연합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절박하게 요구되는 탈핵운동에 대한 회원Y의 이해와 실천력을 돕기 위한 ‘움직이는 탈핵학교’를 기획했다. YWCA 움직이는 탈핵학교의 목적은 회원Y 자원지도자·실무자들의 탈핵운동 인식 강화, 회원Y 탈핵 교육 지도력 강화, 회원Y 탈핵 지역이슈 대응 및 실천력 강화, 회원Y 탈핵운동 정책 제안 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2개 회원Y가 신청했고 이 중 5개 회원Y(논산, 목포, 여수, 진주, 천안)가 최종 선정돼 6월부터 7월까지 각 회원Y별로 총 4차시의 강의를 진행했다.

2회의 오프라인 강의와 토론 진행자와 함께하는 2회의 동영상 교육이 아래 일정으로 각 회원Y별로 진행되었다.


- 1회차: 한국 탈핵운동의 의의와 그 가능성  
(강사: 김혜정 방사능시민감시센터 위원장)
- 2회차: 탈핵과 기독교 생명윤리 (장윤재교수 강의 동영상)
- 3회차: 핵 발전과 방사능의 위험 (김익중교수 강의 동영상)
- 4회차: 에너지자립과 대안에너지 사회  
(강사: 이유진 YWCA전문위원, 녹색당정책위원장)

7월 9일 움직이는 탈핵학교의 4회차 강의를 열린 논산 YWCA를 찾았다. 그동안 한 회도 빠뜨리지 않고 참여한 회원들과 이사들의 열정은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되었다. 이유진강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와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지적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특히 원전 비리와의 고리1호기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폐쇄하지



움직이는 탈핵학교를 마치고 지역에서의 탈핵운동을 다짐하는 논산Y 회원들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원전 즉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며, 정부는 원전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대로 된 해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사회가 탈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절실히 필요하며, 지자체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소개하며 에너지 자립마을(성대골), 에너지 절약 컨설턴트 양성 등과 같은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논산 지역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논산Y 회원들은 지자체가 LED로 간판을 교체할 경우 반액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시행 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렸다. 참가자들은 강의가 끝난 이후 총 4회의 강의를 듣고 난 소감을 밝히고 논산 지역에서의 탈핵 의지를 다짐했다. 

“늦감이 대학생으로 70세가 넘어 사회복지를 공부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 핵을 막아야 사회복지가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어디서든 쉽게 배우지 못하는데 학교가 여기 논산까지 와주니까 참 좋습니다.” (조성욱, 논산Y 회원)

“저는 농사를 지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해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자립에 대해 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박인범, 논산Y 회우)

“탈핵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얼마나 소모적으로 쓰고 있었나 생각하게 됐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방법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소형숙, 시민 참가자)

#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줘야 합니다”

- ‘청소년을 위한 탈핵강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청소년들이 탈핵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도봉숲속마을에서 ‘청소년을 위한 탈핵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한국 핵발전소 상황과 문제점, 핵 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성, 외국 사례를 통해 본 탈핵의 필요성과 가능성, 국가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자립, 청소년 대상 탈핵 교육을 위한 워크샵,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견학으로 이루어졌다. 참가자의 소감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함을 느껴본다.


글 | 윤경민 (고양YWCA 이사)



10만년이란 시간은 과연 얼마쯤을 말하는 걸까요?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여 동물의 뼈와 뿔로 만든 뼈 도구와 뎀석기를 가지고 사냥과 채집을 하여 식생활을 하던 구석기시대 전기가 10만년 전입니다. YWCA 활동을 통해 탈핵의 중요성을 알은 지식으로나마 알고 있었지만 10만년동안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강의를 우연히 듣고 옴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줘야 합니다”라는 문구는 저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당위성을 알고 싶어서 저는 ‘청소년을 위한 탈핵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간의 워크숍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이정배 교수님의 ‘생명윤리와 탈핵’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핵에너지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해주셨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핵은 반자연적, 반신학적이라는 사실과 이 시대의 선악과는 핵무기라고 설명해주신 부분이었습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표현 또한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물질로 사는 정신을 배워야 예수님의 삶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붕괴를 보면서 에너지를 통한 조금의 불편함도 감내치 않으려 한다면 사탄에 영혼을 판 존재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후대가 안전해야 한다는 생각과 당장 내 자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알팍한 심정으로 탈핵을 공부하고 탈핵을 외쳤는데, 정말로 왜 탈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목적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갖게 하는 강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가 공유 되는 사회를 꿈꾸며 추구하며 살았으나,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을 보면 현 시대가 결국 세습 자본주의로 인해 부가 공유 되는 사회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가 공유 되는 사회를 만들기도 전에 이제는 위험을 공유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이 움직여야 나라의 정책이 바뀐다는 것을 이번 교육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소신 있는 목소리로 도전의식을 갖고 경제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고 실천하며 살고 싶습니다. 

# 도전과 열정으로! 7기 활동을 마치며

2014년 1월 20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약 5개월간 YWBS를 이끌어간 인터넷 방송국 7기 아나운서들이 6월 23일을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도전, 열정, 변화'라는 주제로 Y의 다양한 소식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소식을 전해준 아나운서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 월요일 김다혜 아나운서



YWCA 아나운서로서 활동이 끝나가는 지금 무렵,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드는 가장 큰 생각은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면접을 보고 두근두근하며 결과를 기다리던 순간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다. 이 활동은 아나운서에 관심이 있고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활동인지라 방송 시작 전, 후로 발전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에 본인에게도 굉장히 유익했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공중파 방송이 아닌 인터넷 방송이기에 청취자들에게 공중파에서는 볼 수 없는 신선하고 친근한 방송을 하고자 프로그램들 흥미 위주로 기획했었고 그러한 방송은 호불호가 갈렸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보는 방송이기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도 참 감사하다. 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점은 '사람'이다. 방송을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그 청취자들과 서로 소통하는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YWCA 아나운서 활동이 꼭 이어져서 더욱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

코너 생활 정보/힙합속으로/민거나 말거나/몸짱 프로젝트

## 화요일 오주현 아나운서



맨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고민이 많았다. 어떻게 2시간을 채워야 할지 시청자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됐다. 대본 하나를 쓰기 위해서 일주일도 꼬박 바쳐야 할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송에 점점 익숙해지고 고민보다는 즐거움이 더 많아졌다. 특히 '투스데이 스포츠' 코너를 하는데, 운이 좋게도 올해에 스포츠 행사가 많아 소치 동계올림픽, 야구 시즌 개막, 월드컵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봉주르 프랑스어 코너는 시청자들의 요청으로 생겼는데, 내 방송 중 가장 핫(Hot)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청취자들과 함께 주제를 정하고, 프랑스의 문화, 언어, 문학, 여행, 영화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음식 이야기를 할 때는 시청각자료를 많이 활용했다.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NEW)의 한미미 고문님을 인터뷰할 때는 많은 것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정보를 전달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방송을 진행하는 나와 방송의 팬인 시청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 진정으로 서로 즐기는 방송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YWBS의 문은 활짝 열려있으니깐요 언제든지 두드려 주세요, 그럼 여러분 화요일에 만나요" 내 방송의 마지막 멘트였는데 벌써부터 화요일만 되면 아쉬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코너 시사토평 5/문화가소식/투스데이 스포츠/봉주르 프랑스어

## 수요일 승혜민 아나운서



내가 기획한 방송을 내가 진행한다가 것이 YWCA 인터넷 방송국 아나운서 활동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 흔히 아나운서는 '앵무새 같다'고 하지만 YWBS 아나운서는 그런 수식어가 붙을 수 없다. YWCA 방송은 전적으로 내가 만들어 가는 방송이었다. 첫 방송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 대본 분량을 너무 적게 준비하여 방송내용이 금세 고갈됐고 설상가상으로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 음악 플레이어와 인터넷 모두 먹통이 됐다. 재부팅하여 방송을 다시 시작했을 때 시청자들은 신고식으로 노래를 원했고 나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노래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상의 당황과 긴장은 없고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자연스러워졌다. 나는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했다. 처음 들어오는 시청자들은 Y가 어떤 단체냐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Y에 대해 소개하는데,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Y에 대해 열심히 알아가는 것도 나의 활동 중 하나였다. 내 방송을 통해 사람들이 Y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 친구가 되길 바란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쌓은 시청자들과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준 청취자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코너 내 마음이 궁금해/대화가 필요해/복한이 알고 싶다/트렌드 리포팅

## 목요일 이소영 아나운서



내게 'YWCA'의 이미지는 국내외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곳이었다. 아나운서로서 YWCA에서 활동한 경험은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영광이었다. 상담심리학이라는 전공을 살려 스스로 인터넷 방송을 이끌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기회는 너무 값진 경험이었다. 매번 사회적 이슈와 대중매체를 소개하는 것 외에 심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학교 시험 기간 때보다 전공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하느라 방송 초반에는 밤을 새우며 원고와 퇴고 연습을 해서 막막하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시청자분들의 삶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기에 지치지 않고 매 순간 즐길 수 있었다. YWCA 아나운서 7기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말과 행동, 또 생각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코너 언론 속 심리학/따라 하기 쉬운 피부관리법/영화 속 심리학/힐링 타임

## 금요일 선소미 아나운서



아나운서 지망생 아카데미를 막 수료한 내게 꿈만 같은 시간이 다가왔다. YWBS는 처음으로 내게 '아나운서'란 타이틀을 선물해 준 소중한 곳이다. 매주 금요일 두 시간, 오직 내 힘으로 기획하고 말할 수 있는 방송의 기회를 가졌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국제 이슈를 방송의 주된 틀로 잡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쉽게 소통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나의 2월 첫 방송은 이른바 '철벽 방송'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단호하고 통제된 진행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회 마지막 방송을 맞이하게 된 지금은 시청자들의 이름을 외울 정도로 가족 같은 진행으로 변모했다.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오는 시간을 YWBS에서 함께하다 보니 방송에 대한 가치관도 자연스럽게 변했다. 딱딱하고 정제된 느낌의 어렵기만 하던 방송이 어느새 친구들과 대화하는 따뜻한 이야기의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비로소 지금에서야 진정으로 방송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방송인으로서 발걸음을 시작한 지금, 방송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 YWBS와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코너 Opening POP POP!/한주간 외신뉴스/브라운관 순찰대/오늘의 한마디

### ● 인터넷 방송국 접속방법

한국 YWCA 홈페이지(www.ywca.or.kr)에서 오른쪽 배너 '인터넷방송국'을 클릭하거나 http://afreeca.com/ywca1로 접속하면 시청가능하다. 8기 방송이 7월 28일 시작됐다.

# 목포YWCA 뜨겁게 꿈꾸고 운동하라

글 | 편집실

목포YWCA는 2014년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남여성플라자에서 본부, 어린이집, 여성인력개발센터, 희망지원센터의 실무자 41명과 함께 전직원 연수를 가졌다. 한국YWCA 운동과 6대 정책과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Y운동가들이 하나될 수 있었다. 나이, 경력, 하는 일도 다르지만 목포Y의 실무자들은 하나의 목적으로 이곳에 모였다. Y운동을 이해하고, Y운동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강의와 워크숍으로 진행된 이틀간의 일정에서 부속시설 실무자들 간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조원을 골고루 배치한 점이 돋보였다. 첫째날 YWCA의 정체성에 대한 명진숙 국장(연합회 지역운동국)의 강의 이후 진행된 두 가지 과제 중 첫 번째는 'YWCA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를 찾고 조별발표를 했다. '나눔, 안식, 변화, 고통, 세대, 다문화, 도전' 등의 키워드를 연관지어 발표한 조에서부터 '개인컵을 사용해요', '다문화를 인정해요'와 같은 Y의 언어로 표현한 조도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워크숍이 계속되었지만 시간마다 넉넉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두 번째 과제는 조별로 '목포YWCA는 000이다'를 정의를 내리는 시간을 가졌다.

**"목포YWCA는 꿈이다.**

**지역아동과 청소년의 꿈이고, 여성과 고령자의 꿈이다."**

**"목포YWCA는 마중물이다.**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목포YWCA는 디딤돌이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간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표현은 "목포YWCA는 핵폭탄이다"였는데, 탈핵운동에 앞장서는 YWCA를 하필 핵폭탄에 비유한 이유가 궁금했다. 조원들은 "한번 우리를 건드리면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핵폭탄에 비유했다"고 이유를 말해 모든 참가자들에게 웃음폭탄을 선사하기도 했다.

숙소로 돌아가서도 새벽까지 교제의 시간을 가진 목포Y 실무자들은 둘째날 일정에서는 한국YWCA의 6대 과제를 배우며 더욱 깊이 Y운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 각 부속시설별로 실무자를 1명씩 만나 이들이 생각하는 목포YWCA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목포YWCA는 14번째 추석을 맞이하여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 전액을 목포지역의 비인가시설 및 복지사각지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전 직원들이 만원씩 후원하여 아이티의 5명의 아이들과 미혼모시설에 후원하는 따뜻함과 배려가 가득하며,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 실무자들의 이야기

1.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 현재 일하고 계신 곳을 소개해 주세요. 3. 목포YWCA만이 가진 장점을 얘기해 주세요. 4. Y운동가로서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 본부 | 성인순 팀장

- 안녕하세요? 저는 YWCA 7년차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교육과 행정, 취업업무를 맡고 있는 성인순입니다.
- 저는 본부에서 전남지역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및 제공기관을 운영 지역내에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저희 본부는 사소한 일 하나라도 항상 함께하고 서로 배려해 주고 작은 것이라도 아낌없이 나눠주는 정 많고 동료애가 물씬 풍기는 에너지 넘치는 곳입니다.
- 프로는 적당히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YWCA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무자가 바로 서야 하고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모든 일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나 올해 6대 과제 중 하나인 탈핵 운동과 관련하여 핵없는 세상을 위해 지역 내에 환경지킴이가 되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환경운동가가 되고자 합니다.



### 어린이집 | 장현정 교사

- 저는 Y어린이집에서 일한 지 4년차인 7세반 교사 장현정입니다.
- 저희 Y어린이집에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아이들이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데, 저희 7세반 아이들은 서로 배려하고, 잘못을 먼저 인정할 줄도 알고, 다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와줄까?"라고 묻기도 합니다.
- 목포Y 어린이집에서는 숲체험과 같은 생태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을 직접 만져보며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도록 하는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하는 교사들이 활발한 편이어서 으샤으샤 기분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 저는 인성이 바른 아이들을 키워내는 Y어린이집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 희망지원센터 | 황정원 팀장

- 저는 YWCA 9년차이고, 행정과 회계를 맡고 있는 황정원입니다.
- 전에는 본부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사회적기업 희망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Y가 기독교 단체여서 선택했고, 이 곳에 와서 일하는 과정들 하나 하나가 참 재미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곳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 저는 Y운동을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희는 집에서 EM 제품을 쓰는데 제가 혹여나 다른 제품을 쓰면 우리 아이들이 먼저 "엄마, EM 써야지. 딱 거 쓰면 어떡해"라고 합니다. 저는 Y를 '업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통해서 Y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 사실 저희 사회적기업은 한 달을 지내기에 참 빠듯한 재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달을 지내고 나면 우리들끼리 서로 "이번 달도 우리 참 애썼다."라고 격려하며 어쩌면 하루살이같은 우리들을 보며 참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본래 목표가 공익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인 만큼 1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만 살기에 빠듯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안정적으로 이윤을 나누고 돌려줄 수 있는 희망지원센터가 되기를 기대해주세요.



### 여성인력개발센터 | 박현진 간사

- 안녕하세요. 저는 Y운동가 2년차인 교육기획팀 박현진입니다.
- 저희 센터는 여성취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여성들의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에 함께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저희 직원들이 힘을 합해서 센터 옥상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작물마다 직원들의 별명을 적어서 업무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자신의 작물에 애정(?)을 듬뿍 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풀도 뽐아 주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 예전에는 YWCA라고 하면 여성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딱 자리잡고 있었는데, 요즘은 여성 취업뿐 아니라 문화센터 등 기관과 단체가 많이 생겨서 젊은 사람들이 YWCA를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여성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Y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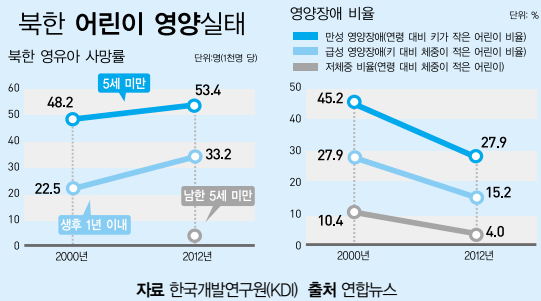


# 먼 훗날의 평화

글 | 김주영 (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 사업단 위원)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월 4일 북한 김정은의 평양 육아원, 애육원 방문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올해부터 육아원과 애육원의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매일 300g씩 먹이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한 아이들을 가리켜 ‘미래의 역군, 혁명의 계승자’ 라는 말을 했다. 우리는 김정은의 이날의 언행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따뜻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심기위한 연기기능은 하나, 김정은이 던진 말속에도 ‘우리가 도와야 하는 상대가 왜 아이들인가?’ 에 대한 해답은 있다.

## 북한 영유아 영양 실태와 영양결핍의 심각성



북한의 5세미만의 아동 3명중 1명은 영양결핍(만성, 급성영양결핍, 저체중)에 해당되며, 특히 4명중 1명은 발육저하를 겪고 있다. 심지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남한의 14배에 달한다. 영아기와 초기 어린 시절 동안의 영양결핍은 인지기능 및 행동 발달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간 건강의 기초는 영유아기(0-5세)의 고른 영양소 섭취에서 시작된다. 초기 영양상태의 결핍은 인지 및 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의 부피 감소,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변화, 그리고 여러 정신운동 발달과 관계있는 소녀의 변화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뇌의 구조적 변화는 일시적인 영양결핍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아상태에서 초래되어 영구적인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 한국YWCA의 움직임

한국YWCA가 이러한 맥락에서 199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운동은 생후 1,000일까지의 영양상태가 향후 인생의 질병과 학습능력 및 인지능력을 좌우하는 만큼 차기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 대한 준비이자 평화 통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움직임이다. 이미 영양결핍으로 인해 발달의 저해가 초래된 성인들보다도 우선 시급한 산모와 3세 미만의 영아들에게 정상적인 신체 상태와 정신 상태를 갖게 하는 것은 영양실조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YWCA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보낸 분유의 양만 25톤에 달하며 이후에도 내복, 의약품, 쌀국수, 학용품, 감귤 등의 아동들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다. 5.24조치로 대북지원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현재에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 어린이와 함께' 라는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북한 어린이의 건강한 미래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이 캠페인의 참여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정기후원 방식을 비롯해서 특별한 기념일에 일시 후원도 가능해졌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이 어렵지만 자기만의 실천 가능한 기준을 세워서 시작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주변 지인들에게 예쁜 우유팩 저금통을 선물하는 것으로 첫 발걸음을 떼어보면 어떨까? 결국은 관심이다. 우리가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고, 북한 아이들이 영양을 공급받을수록 통일 후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는 더욱 밝지 않을까.

# 뮤직앤뉴와 함께한 자선 바자회

지난 6월 7일 논현동에는 뮤직앤뉴의 자선바자회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뮤직앤뉴는 한국YWCA의 북한 어린이돕기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소속가수들과 함께 뜻깊은 자선 행사를 마련하였다. 이날 뮤직앤뉴의 소속가수인 린과 엠 씨더맥스, 스위트소로우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자신이 입었던 옷과 다양한 소품, 앨범 등을 직접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수들의 다양한 재능기부 행사도 진행됐다.

팬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핸드폰에 녹음해 주는 '10초 모닝콜', 손글씨, 팬들의 얼굴을 직접 그려주는 초상화, 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60초 상담소' 등을 운영하는 등 재능기부 활동도 함께 펼쳐주었다.

뮤직앤뉴는 이날 진행된 플리마켓의 수익금 전액을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운동에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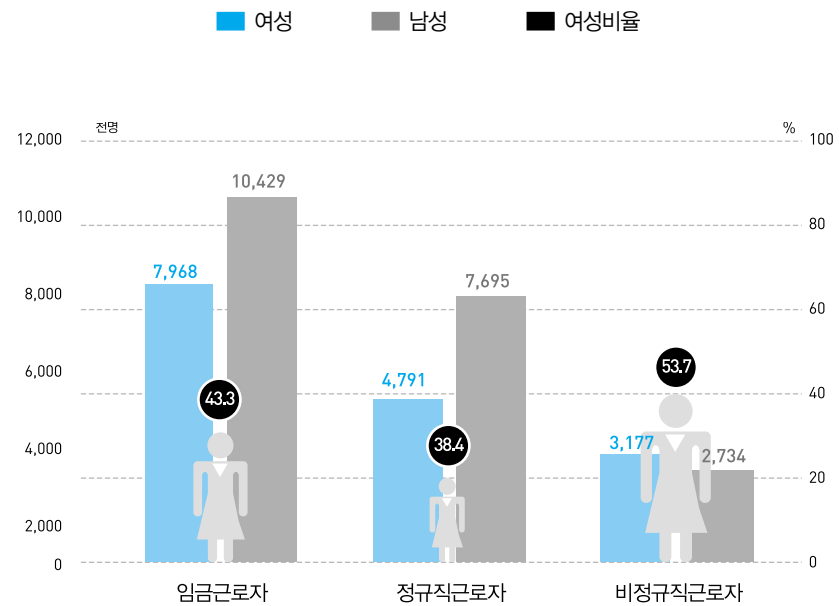
## 북한어린이돕기 후원 명단

6월 (2014년 6월 2일 - 6월 30일)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 기부 (2014. 6. 1.~ 6. 30.)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고은희, 곽지영, 구정혜, 국승훈, 권순복, 권진, 김가혜, 김건세, 김기동, 김명희, 김미애, 김병호, 김사라, 김수연, 김애련, 김영자, 김은경, 김재연, 김진용, 남솔, 남희숙, 명진숙, 문미란, 문인수, 박보람,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세원, 백정미, 백혜진, 서명희, 송록희, 송윤경, 신인숙, 안혜진, 엄효정,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명선, 윤수정,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A, 이지은B, 이행자, 이혜련, 이혜진, 임강숙, 임국미, 임진영,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정미, 전하예, 정동신, 정서연, 조영미, 조은선, 조은희, 조은희, 진인식, 채정희, 최수산나, 최우림, 최원진, 최윤영, 최지혜,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홍기자, 홍현정, 황정아, 황홍백 (총 93명)	1,406,000
개인기부 (월계좌이체 기부, 기념기부 등)	김미, 고의순, 방원철(성광교회), 배영자, 윤화자, 최혜실	10,410,000
협력교회	성광교회, 주안장로교회, 궁정교회, 기쁜소식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14,083,630
기관 및 단체	뮤직앤뉴, 에베소세계선교회, 마포구청 여성교회	3,050,000
회원YWCA 부속시설	서천YWCA, 대전YWCA	159,400
저금통기부	주솔	14,380
합계		29,123,410

## 2014년 상반기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비율 53.7%, 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8.4%에 불과

2014년 상반기 성별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및 여성비율



2014년 상반기(3월)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입니다.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친 ‘임금근로자’는 2014년 상반기(3월) 18,397천 명으로 여성은 7,968천명, 남성은 10,429천 명이었고 여성비율은 43.3%였습니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여성 4,791천명, 남성 7,695천 명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2,904천 명 더 적었으며 여성비율은 38.4%였습니다. 반면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근로자로 구분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여성이 3,177천 명, 남성이 2,734천 명으로 여성이 443천 명 더 많아 여성비율이 53.7%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인지 통계정보시스템(GSIS)

## 연합회 소식

### 7월 월례기도회



7월 월례기도회가 7월 1일 오전 7시 30분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훈삼(성남주교회) 목사는 ‘아름다운 물음’ (마가복음 10장 17절~22절)이라는 제목으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던 청년의 일화를 통해 우리 시대 청년들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했다. 인천Y 대학Y 회원들의 특송과 함께 YWCA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항상 전진하는 청년성을 가지기를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 (자세한 내용 5쪽에)

###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매주 화요일 연합회 회관 앞에서 펼쳐지는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은 경기지역Y(제14차), 서울Y(제15차), 인천Y, 안동Y(제18차) 등 적극적인 회원Y의 참여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더운 여

름날 명동을 지나시는 시민들에게 얼음물을 나눠주며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며 특별법 제정 서명 운동을 함께 떠나가고 있다. 특히 제17차 캠페인에는 인디밴드 ‘날자오농’의 미니콘서트를 통해 이날 하루만 300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8월 22일 에너지의 날까지 전국 회원Y 캠페인 부스에서 1차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 제3차 YWCA 돌봄정의포럼

7월 17일 대전YWCA 강당에서 제3차 YWCA 돌봄정의포럼이 열렸다. 대전YWCA와 연합회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YWCA와 돌봄노동’을 주제로 대전Y 살림돌보미 한춘희 회원의 사례발제와 광지역 송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의 주제발제가 있었다. 연합회와 회원 YWCA 실무자와 돌봄 회원 등 55명이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27쪽에)

### 제1차·제2차 회원YWCA 모금전략워크숍



올해 6개 정회원YWCA(대전, 부산, 서울, 순천, 전주, 청주Y)를 대상으로 모금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총 3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모금워크숍은 대중모금과 거액모금의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실현가능한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1차 모금워크숍은 6월 18일에 6개 회원YWCA와 고양YWCA(2013년도 참가회원Y) 총 45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기부자 분석과 더불어 매력적인 모금 아이템을 각 회원YWCA별로 선정하였고, 모금목표액에 따른 잠재기부자를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차 모금워크숍은 7월 16일에 월정액 기부자에 대한 예우방안과 다양한 이벤트의 성공과 실패사례의

공유, 거역기부자를 위한 단계별 방안 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7월 30일 마지막 워크숍 이후 하반기 모금실행계획을 수행한 후, 연말의 평가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각 회원YWCA의 운동과 모금에 대한 실제적인 방향과 실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회 직원연수 '지역에서 꽃피우는 생명운동'**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와 백두산에서 연수를 진행했다. 연합회 활동가 23명과 강사 3명,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간사 등 총 27명이 이번 연수에 참여했으며, 공동체 훈련, 'HER STORY(생명의 여성)', 목상과 나눔, 두만강 변경지대, 백두산 천지, 용정 등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가들은 연수를 통해 연변 조선족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 온 민족성을 재인식하고, 조선족 여성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아울러 천지와 두만강 너머의 북한 땅을 마주하고 평화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서로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공심통심' 교육부장관상 수상**

7월 4일 연합회와 포스코와 협력 개발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공심통심'이 '2013년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특임센터에서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실시한 '2013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공모'는 2013년 6월과 2013년 10월 총 2차례의 심사를 거쳐 6개 부문의 최우수작을 선정했다. '공심통심'은 소통과 경청을 통해 구성된 간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고 언어와 비언어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는 총 4차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형태가 아닌 체험 중심의 참여형 교육 모델을 적용하여 다수의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활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일억인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연합회는 전국 24개 회원Y로부터 7,340명의 서명을 우편 수령하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에 전달했다. 정대협과 세계YWCA 대표는 6월 14일 열린 26차 유엔인권이사회에 1차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수명끝난 원전 폐쇄! '막자! 원전사고!' 캠페인 주관**

연합회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주관하는 '수명 끝난 원전 폐쇄 캠페인'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일주일간 낮 12시부터 1시까지 서울 광화문 KT 본사(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앞에서 '막자! 원전사고!' 캠페인을 주관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안고 있는 수명 다한 원전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며 서명을 요청했다. 7월 22일에는 화요캠프를 통해 청원서명, 인증샷, 모금을 진행했다.

**사회복지사 양성 프로젝트**

연합회는 연합회 활동가와 회원Y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다변화되는 복지 정책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복지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 양성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행자리더십기금을 활용하여 협약 학교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편입시 2년간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합회 활동가 16명과 회원Y 사무총장 1명이 2014년 2학기 과정에 등록했다.

**동 정**

- 오순수 중부지역위원장 (대전Y 회장)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제19회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출 간**

- 2014~2015 한국YWCA 정책안내서 · 6대 과제 소책자 (연합회 Y아카데미)
- 어머니란 이름으로 탈핵을 외치다 (부산YWCA)

**고양YWCA | 남궁혜경 국장**

**제4회 고양여성영화제**  
고양파주여성민우회와 함께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영화 속 여성의 몸'을 주제로 '제4회 고양여성영화제'를 진행하였다. 개막프로그램으로 도서 '뚱뚱해서 죄송합니다'를 통해 예뻐지느라 아픈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북토크를 시작으로 총 7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상영된 영화를 통해 여성의 몸이 자기주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광주YWCA | 김해정 간사**

**'정당공천제와 여성의 정치참여' 토론회**  
7월 4일 오후 2시 광주YWCA 1층 대강당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공천제와 여성의 정치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은 김신희 사무총장(광주Y)의 사회로 최양남 회장(광주Y)의 인사말과 박해자 민주당 최고위원의 축사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박의경 교수(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사회로 김은희 상임대표(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의 '정당공천제와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주제발표와 발제자들의 질의가 있었다.

**김해YWCA | 배정숙 실장**

**2014 여성 내 일 Job기 페스티벌**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7월 4일 김해운동장에서 여성 내 일 Job기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채용컨설팅관, 창업정보관, 여성유망직종 체험관으로 구성되었고, 구인구직상담 및 개인맞춤형 상담을 통한 이력서 지원으로 취업을 알선했다. 또한 네일아트, 카페디저트, 커피바리스타 등 여성특화 과정과 외식창업아이템을 전시하고 창업정보를 제공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직업정보와 여성유망창업직종 안내, 맞춤형 취업컨설팅 등을

통해 폭넓은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논산YWCA | 김화선 팀장**

**제25회 논산시 여성대회 및 한미음 체육대회**  
논산YWCA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7월 8일 논산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가정폭력 및 학대 방지 예방을 위한 폭력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및 폭력 사진을 전시하고 홍보용 밴드를 배포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의식을 개선하여 폭력근절을 위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안전한 논산시가 되길 기대한다.

**대전YWCA | 김지찬 간사**

**미니 취업박람회 '육아맘에서 워킹맘으로'**  
7월 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3040 여성취·창업지원 미니 취업박람회 '육아맘에서 워킹맘으로'를 진행했다. 350여 명의 구직 희망 여성들이 참여했으며, 여성CEO특강, 직종특강, 체험행사(미니화분, 방향제, 천연비누 만들기), 지문적성검사를 진행했다. 10개 업체가 현장면접을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했다.

**제19회 대전여성포럼**

7월 4일 오후 2시부터 대전YWCA 4층 강당에서 시민 및 회원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대전여성포럼 '대전지역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방안 모색'을 진행했다. 이택면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과 관련된 토론이 진행됐다.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되었다.

**목포YWCA | 박수현 부장**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  
목포YWCA여성인력개발센터는 7월 9일 전남도청에서 실시하는 '2014년 전라남도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찾아가는 취업 지원서비스 부스를 마련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검사 도구의 하나인 브레인컬러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7월 11일 목포시 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도 '취업고민 썩! 희망 썩!'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역 내 여성들의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을 나누며, 직업카드 검사를 실시하여 구직여성들의 진로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부천YWCA | 이지원 간사**

**친환경 EM부스 운영**  
부천시 여성단체들은 7월 5일 토요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핸드드립 커피 만들기', '식물 심기', '아나바다 장터', '위안부 만화 기획전', '아동 여성 성폭력에 방 서명운동'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스 운영을 하였다. 부천YWCA는 '친환경 유용미생물 EM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EM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개하고 EM 사용법과 효능에 대해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천YWCA | 정희경 간사**

**사천Y 홍보부스 운영**  
7월 4일 삼천포체육관 일원에서 사천시여성주간 행사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동 소비자상담실 운영, EM 홍보 및 발효액 무료배부, 아이돌봄사업 홍보, 서명운동(탈핵,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내 여성들이 현 사회문제 현황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서귀포YWCA | 김수진 간사**

**구인구직 만남의 날**

서귀포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서귀포시내 여성 구직자의 취업촉진과 구인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을 위해 7월 1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취업지원관, 기업재용관, 직업체험관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현장 면접 15개 업체, 간접참여 19개 업체가 참여해 90명 모집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구직자 300여 명이 참가했다.

**수원YWCA | 정지영 간사**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15주년 기념 및 사진전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이 마음껏 일하는 사회-내일을 향해'라는 주제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시청 로비에서 15주년 및 여성 주간 사진전을 열었다. 이번 사진전은 국립여성사진전시관 직업 변천사와 15주년 사진, 여성주간 의미를 담은 캘리그래피 등 20여 점을 선보였다.

**여수YWCA | 김상희 간사**

**오한숙희의 쫄깃한 토크 콘서트**

여수시 여성단체협의회는 7월 11일 문예회관에서 여성단체회원 및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하는 여수, 행복한 여수'라는 주제로 여수문예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2부 행사로 여성학자 오한숙희를 초청해 토크콘서트로 진행했고 여수Y 한윤덕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여성 일자리와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성 주류화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 특강**

여수YWCA는 '성 주류화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사:문옥희 전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전남도의원, 관내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및

YWCA 이사 및 실무자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 인지 특강을 개최했다.

**의정부YWCA | 이미진 간사**

**성 인지 정책교육**

7월 8일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이해'라는 주제로 성 인지 정책교육을 실시했다. 회원들의 성 인지 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정책이 대상의 특성을 분석하고 요구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여성가족분과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2014년 여성주간 포럼을 7월 16일 실시했다.

**인천YWCA | 이한나 간사**

**생명사랑회복 음악회**

6월 24일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인천Y 주최, 인천광역시 후원으로 생명사랑과 회복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여성중창단 그린싱어즈, 주디스양상블의 5중주, 테너 정재환, 베이스 권용만, 인천Y합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사회적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의 세상을 이루고자 마련되었으며 300여 명의 회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였다.

**전주YWCA | 김은진 부장**

**전북YWCA협의회 기념행사**

7월 2일 오전 10시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4층 강당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녹색생활' 특강 및 생명 이야기가 있는 대금연주를 열었다. 특강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녹색생활'이란 주제로 김익중 교수(동국대학교 의과대학)가, '생명이야기'가 있는 대금연주는 이창선 국악인이 나섰다.

**제주YWCA | 장진우 간사**

**'인문학특강', '2014 여성행복 잡카페'**

제주Y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제3의 도약! 내안의 당당함 찾기'라는 슬로건으로 7월 7일에 '인문학특강'과 7월 10일에 '2014 여성행복 잡카페'를 진행했다. 인문학특강은 이미지 마케팅 전문가인 김근혜 대표(해피라이프컴퍼니)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2014 여성행복 잡카페는 여성가족친화적인 구인기업과 구직희망여성의 만남을 통해 여성근로자 60여 명의 채용을 위해 11개 기업이 현장면접에 참가하고 구직 희망 여성은 130여명이 참가했다.

**창원YWCA | 정미영 간사**

**'창원시 양성평등 특강'**

7월 2일 경남도청 신관에서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하는 사회, 행복한 경남'이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열었다. 창원Y는 530여 개의 EM발효액을 무료배부하고, EM 및 관련 제품에 관하여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7월 9일 창원 늘푸른전당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특강이 열렸으며, 이사와 실무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포항YWCA | 황혜민 간사**

**길거리 캠페인**

**여성 일자리 상담 및 수요조사**

포항Y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7월 7일과 9일 이틀간 여성주간행사에 참여했다. 포항Y 가정폭력상담소는 7월 7일 가정폭력 예방 길거리캠페인에 참여하여 '행복한 포항, 폭력 없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요'를 외치며 포항 흥해시장 일대를 행진했다. 포항Y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7월 9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회 포항세오녀문화제'에서 '잡(job)이라, 취업률! 높여라, 여성을!'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담 및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북부**

**서울YWCA | 성지희 간사**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6월 30일(월)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세 시간 동안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을 벌였다. 조흔, 신부화장, 태아낙태, 성기절단 등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제3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폭력의 실태에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적극적으로 동참의지를 보여 주었다. 서울Y는 앞으로도 명동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릉YWCA | 정경진 간사**

**제26회 강릉YWCA 회원대회**



7월 14일(월) 강릉Y 회관에서 열린 제26회 회원대회에 60여명 회원이 참석했다. 고문회 강릉Y 회장님의 개회 선언과 2014년 회원보고를 시작으로 이훈삼 목사(성남침례교회)의 '애처로운 상상력이 세상을 구원한다' 특강이 이어졌다. 2부로는 EM 천연·재활용비누 만들기, 환경수세미 만들기, 리본공예, 대안생리대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만든 대안생리대는 8월 북한여성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동해YWCA | 김정은 간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취업창구'**



초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6월 26일(목) 동해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천곡동 우리은행 앞에서 관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구직자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발굴과 직업훈련에 관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였다.

**속초YWCA | 김희숙 간사**

**EM 발효기 설치**



7월 8일(화) EM발효기를 설치했다. 이병선 속초시장과 김태균 영랑동 주민센터 동장, 양형철 목사(살롬교회)를 비롯한 속초Y 회장, 이사, 사무총장과 실무자들이 축하의 자리에 함께 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EM을 통한 작은 환경사랑 실천운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꾸는 속초시의 목표와 같이 간다며 축하했다. 속초Y는 7월부터 8월 말일까지 EM발효액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며 EM을 통한 작은 생활실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원주 YWCA | 윤정진 간사

에코스쿨 떠나재 농촌으로!



청소년들이 삶의 터전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이해하고 환경지킴이로 살아가도록 돕는 체험 프로그램 '에코스쿨'이 6월 21일(토)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외갓집 체험마을로 체험을 다녀왔다. 학생 23명과 인솔자 3명이 함께 나무와 이야기 나누기, 감자캐기, 물고기 잡기, 고추모종 심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이 주는 감사함과 소중함을 느꼈다. 또한 7월 12일에는 원주시 귀래면에 곤충농장을 찾아가서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해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환경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춘천 YWCA | 이복희 본부장

음식을 나누며 마음을 전하는 요리봉사 동아리 '초아'



춘천Y 청소년문화의집 소속 동아리 '초아'는 춘천시내 중학생 연합동아리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요리봉사 동아리이다. 6월 28일(토)에는 밀반찬을 만들어 국가유공자 어르신 댁에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초아'는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기

고양 YWCA | 남궁해경 국장

세월호 서명 캠페인



6월 25일(수)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고양시 화정역, 주엽역에서 세월호 사고의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의 취지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서명을 받았고, 향후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천 YWCA | 이지원 간사

부천 의정 모니터링단 1기 교육 - 풀뿌리 정치에 성인지 관점 불어넣기

부천시 여성단체들은 우리가 뽑은 일꾼들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지, 시민들을 대표해 일을 잘 하는지 살피고 잘 할 수 있게 격려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시민 의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성 인지관점과 성주류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 성인지 예산 이해, 의정모니터링의 실제 등의 내용으로 총 8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 교육을 통해 지역민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보다 살기 좋은 부천과 성숙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세월호 가족버스 부천방문



세월호 가족버스가 7월 12일 오전 10시 부천을 방문해 석왕사에서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갖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버스는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주체가 돼 운영됐으며, 방문지역에서는 '세월호 가족버스 맞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돕고 천만인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간담회 후 부천Y는 유가족들과 함께 부천역에서 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 천만인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세월호 가족버스의 부천 방문 후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성남 YWCA | 황정아 간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감시활동



6월 24일(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이 있었다. 20여 명의 감시단원과 함께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성남시 야탑역 인근의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하였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도 진행했다.

수원 YWCA | 정지영 간사

조부모 손자녀교육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55세 이상 수강생 16명을 대상으로 '조부모 손자녀교육 오손도손'을 진행했다. 교육은 조부모

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발달단계에 따른 양육방법과 성장요가, 풍선아트 등으로 구성됐다. 수강생들은 손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나눔으로써 같은 세대에서 느끼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소감을 나눴다.

안산 YWCA | 문성은 간사

외환다문화가정대상 행복도움상 수상



안산Y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7월 1일(화) 서울 외환은행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외환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인 행복도움상을 수상했다. 외환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은 외환은행나눔재단에서 2009년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복지증진을 위한 시상제도로, 모범적인 다문화가정 주부 및 다문화가정에 도움을 준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해 왔다.

안양 YWCA | 김희정 간사

해피패밀리 아빠의 육아스쿨



6월 28일(토) 아이플러스행복더하기 아빠의 육아스쿨 마지막 시간인 치즈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출산과 육아가 부모공동의 기쁨이자 책임임을 공감하고, 자녀 양육에 행복을 더하기 위하여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교육과 놀이지도, 요리교실, 대화법 등

을 지원하였다. 자녀와 추억을 만들면서 아빠로서의 자존감을 높인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양Y의 대표적인 가족프로그램이다. 하반기 진행 예정인 가족그림 그리기 행사에도 참여하여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길 것으로 기대한다.

의정부YWCA | 이미진 간사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실**  
의정부Y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인 워킹맘과 자녀가 함께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실인 '스마트한 내 자녀, 스마트폰 클리닉'을 초등학교 고학년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 홀랜드 진로적성검사를 바탕으로 한 유형별 게임 및 토론대회, 공감과 소통을 위한 힐링패밀리 캠프로 진행된다.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 고취 및 자기조절력 향상으로 자신의 '꿈' 실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평택YWCA | 정혜근 간사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교육**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여 산모·살림돌보미 직종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및 가족에 대한 이해,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영양과 식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일자리 개척동아리를 구성하여 직무능력의 지속적인 향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부

제천YWCA | 이경희 부장

**제천 한방엑스포공원 아름다운 주말장터**  
4월말에 시작된 'EM전문가 과정'이 7월 4일 32시간 교육을 끝으로 수료식을 했다. 지난 6월 20일은 과정 중 EM흙공을 만들어서 천안을 중심으로 흐르는 강에 투하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다. 수료생 35명은 EM전문가로 거듭나며 EM의 확산에 열심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6월 28일(토) 한방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주말장터에 참여했다. 탈핵 및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며 태극부채와 EM발효액을 만들고, 하천 살리기 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수익의 10%는 제천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공익기금으로 후원했으며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운동에 쓰일 예정이다.

청주YWCA | 김지현 간사

**여전도연합회장 초청간담회**  
6월 16일(월) 개교회 여전도연합회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충북 청주지역 여전도연합회장들과 청주Y 사회선교위원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Y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하나님 나라 운동 확장을 위해 앞으로 교회여성들과 연합하여 소통하기를 소망한다.

천안YWCA | 이연주 간사

**천안천에 EM 흙공을 던지다**  
4월말에 시작된 'EM전문가 과정'이 7월 4일 32시간 교육을 끝으로 수료식을 했다. 지난 6월 20일은 과정 중 EM흙공을 만들어서 천안을 중심으로 흐르는 강에 투하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다. 수료생 35명은 EM전문가로 거듭나며 EM의 확산에 열심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4월말에 시작된 'EM전문가 과정'이 7월 4일 32시간 교육을 끝으로 수료식을 했다. 지난 6월 20일은 과정 중 EM흙공을 만들어서 천안을 중심으로 흐르는 강에 투하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다. 수료생 35명은 EM전문가로 거듭나며 EM의 확산에 열심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서부

광주YWCA | 김해정 간사

**'불의 날' 선포식 및 캠페인**  
6월 17일(토) 유스퀘어 광장에서 노후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는 '불의 날' 선포식이 최양남 회장의 인사말 및 취지발언을 시작으로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해 탈핵을 요구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다. 캠페인을 통해 노후한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의 폐쇄,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재가동 및 신축건설 반대,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국제적 수준에 맞춘 안정성 확보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한 녹색생활 실천에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남원YWCA | 박경은 간사

**청소년 어울림마당 탈핵부스 운영**  
남원Y-틴은 6월 21일(토)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청소년어울림마당 탈핵부스를 운영했다. 탈핵 체험부스에서는 연장수명 원전폐쇄 서명운동, 탈핵부채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에게 탈핵의 중요성을 알리고, 탈핵운동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앞으로 남원시민들에게 탈핵을 알리며 핵 반대 운동에 앞장서는 남원Y가 되길 기대한다.

전주YWCA | 김은진 부장

**임실 중금마을 찾아 녹색생활 실천단 현장교육 실시**  
전주Y 프로그램사회문제부에서는 6월 24일(화) 임실 중금마을로 녹색생활 실천단 40여 명과 함께 현장교육을 다녀왔다. '기후변화와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고, 재생가능 대안 에너지 체험과, 안전한 먹거리도 체험했다. 본 사업은 생활 속 에너지 절약과 녹색생활을 위한 노력을 확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생명 세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운동이다.



익산YWCA | 장윤미 간사

**친환경 우리집 만들기 환경 교육**  
7월 12일(토) 김양용 강사(그린스타트)를 초빙해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녹색소비생활의 지혜' 이론교육을 통해 생활에서 간과하기 쉬운 녹색소비의 지혜를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목포YWCA | 곽수현 부장

**친환경농법 우렁이 넣기 행사**  
목포Y 어린이집에서는 6월 19일(목) 진도군 만금친농회와 어린이집 원아, 학부모 등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우렁이 넣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들이

우렁이를 직접 눈에 넣고, 우리가 먹는 쌀이 어떤 과정의 시작으로 이뤄지며, 친환경농법으로 만들어지는 쌀의 소중함을 느끼고 진도해양에너지관을 견학하며 자연 속에서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순천YWCA | 신현아 간사

서부지역 중견실무자 워크숍



서부지역YWCA 중견실무자 워크숍이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NGO 희망지기 날다 - 느낌 아니까?!'란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서부지역 Y아카데미센터인 순천Y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한국여성재단의 '짧은 여행, 긴 호흡' 실무자 힐링 연수지원의 일환으로써 근무경력 2년 이상의 중견 실무자 17명을 대상으로 개최예배, 개회식, 탈핵 플래시몹, YWCA와 성인지 주제워크숍, MISSION 팀워크 대항전 및 4조 4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견실무자들 간의 네트워킹과 힐링의 기회를 갖도록 기획됐다.

여수YWCA | 김상희 간사

교역자 초청간담회 개최



여여수YWCA 교역자 초청간담회가 7월 3일 오후 5시 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YWCA 운동과제와 여수YWCA의 활동내

용을 알리고 더불어 2014년 주력사업인 탈핵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 간담회는 여주시내 각 교회 담임목사 10여명을 비롯한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자들 모두 핵에너지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한 것으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탈핵은 반드시 필요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재생에너지로 점차 전환해야 함에 공감하고 이 일에 기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야함을 느꼈다.

동부

대구YWCA | 김세형 차장

실무지역량강화워크숍



6월 20일(금)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해 실무지역량강화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미원 대표(대구여성재단)를 모시고 성 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대구Y가 펼쳐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박선 대구Y 사무총장이 회원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강의하고 올바른 회원관리와 회원 증모에 대해 토의했다. 대구Y 실무자들이 건강한 리더십으로 성장해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지도력들이 되길 기대해본다.

울산YWCA | 김선양 팀장

노인소비자교육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3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울산시노인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등 6곳에서 진행된 이번 소비자교육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을 주제로 소비자피해사례와 그 대처법을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상황극으로 준비했다.

포항YWCA | 황혜민 간사

결혼이민여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결혼체험



7월 11일(금) (주)W컨벤션 후원으로 결혼이민여성들과 함께하는 무료 신부체험을 진행했다. 자국에서 결혼은 했지만 한국에서 결혼하지 못해 웨딩드레스를 입지 못한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웨딩드레스와 메이크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결혼이민여성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및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레 모임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안동YWCA | 강주영 간사

안동Y-틴 '청출어람(靑出於藍) 봉사단'



7월 4일(금) 안동Y-틴 봉사단 '청출어람' 이 안동시 초등학교와 고택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역 내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을 방문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기초식품군 알기 게임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고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먹으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또 안동의 대표 고택 명소인 '임청각'을 방문하여 7~8월에 집중될 고택체험을 준비하며 잡초 뽑기, 주변 청소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안동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앞장섰다.

거제YWCA | 김의향 부장

둔덕골 지역아동센터 개소식



6월 21일(토) 거제Y 둔덕골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며, 보호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거제Y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거제문화예술재단 거제원드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앞으로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과 가족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해 본다.

마산YWCA | 이애라 부장

창립 48주년 기념 다투프로젝트



마산Y가 1966년 7월 창립 이래로 올해로 48주년이 되었다. 이를 기념하고 가족친화문화조성을 위하여 여성들이 짠 다투조각을 연결하여 여성의 형평성과 돌봄, 소통의 가치를 높이고자 다투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7월 24일(목) 기념예배와 오프닝행사, 체

협부스 등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천YWCA** | 정희경 간사  
EM전문강사 양성교육 실시



사천Y 사회문화부에서는 6월 27일(금) 2층 강당에서 EM전문강사 양성교육 수료식을 실시했다. 6월 16일부터 매주 월, 금요일 총 4회에 걸쳐 환경의 의미와 EM의 유용성, 활용방법과 강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EM전문강사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EM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의 교육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YWCA** | 박경하 간사

‘우리 아빠는 셰프’ 요리경연대회



7월 5일(토) 행복한 양성평등 가정 만들기의 일환으로 ‘우리 아빠는 셰프’ 요리경연대회를 양산농수산물유통센터 2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의 아버지 역할을 재조명하고 가족구성원인 아빠가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있는 가사 활동 일부분을 분담함으로써 양성평등 문화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아빠들의 요리로 가족들이 화목한 시간을 가

졌으며,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행복지수를 높였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가정에서부터 아빠일, 엄마일 구분 없이 가정에 서부터 양성평등실천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진주YWCA** | 류지혜 간사  
YWCA 움직이는 탈핵학교



7월 1일부터 연합회의 지원으로 ‘YWCA 움직이는 탈핵학교’를 시작했다. 매주 1회씩 총 4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회원과 자원지도자 및 지역 내 환경운동가 등 25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특히 진주Y가 탈핵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양성하고 있는 강사단 ‘초록누리아띠’가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토대로 진주 지역에서 하반기에 진행될 ‘생명살림 초록교실’에 더욱 힘을 실어 탈핵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창원YWCA** | 정미영 간사

성 인지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모(두) 모(임)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7강으로 오전 10시에 지역사회의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성 인지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내가 만들고 싶은 평화세상”

<b>주제</b>	내가 만들고 싶은 평화세상	<b>시상내역</b>	한국YWCA 회장 명의의 상장, 상금 : 논문 최우수 1편 50만원, 우수 2편 각 20만원 : 에세이 최우수 1편 20만원, 우수 2편 각 10만원 : 시 최우수 1편 20만원, 우수 2편 각 10만원 * 수상작이 없을 수 있음
<b>참가자격</b>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 (만 29세 미만)	<b>문의처</b>	(사)한국YWCA연합회 청년평화주간 기획단 이지은 간사 (T.02-774-9704, ywcamail@naver.com)
<b>형식</b>	논문 (그룹 논문 가능) / 에세이 / 시		
<b>일정</b>	응모작 접수 : 8월 5일 (화) 수상작 발표 : 8월 8일 (금) 시상 : 8월 14일 (목), 대전 동구 청소년수련관		
<b>응모방법 및 작성요령</b>	지원서 및 응모작을 ywcamail@naver.com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전송		
	지원서 다운로드 및 응모작 작성요령등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www.ywca.or.kr)를 참조		